



2021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18(Sun.)-20(Tue.) April 2021

2021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Conference Book I

Conference Book I

The Prospect of Post-COVID Era
and the Role of Journalism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과 언론의 역할

Hosted by



Supported by





2021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18(Sun.)-20(Tue.) April 2021

Conference Book I

Korean

Hosted by



Supported by





2021 세계기자대회

2021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18(Sun.)-20(Tue.) April 2021

Contents

개요	121
프로그램	129
컨퍼런스 I	133
참가자 리스트	213



개요



행 사 명	2021 세계기자대회
일 시	2021년 4월 18일(일) - 20일(화)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F)
주 최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후 원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hungna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주 제	▷ 콘퍼런스 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과 언론의 역할 ▷ 콘퍼런스 II 지구촌 기후문제와 언론의 역할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과 언론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으로 혼란 -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종식 희망 높아지는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대비 - 전염병의 완전 종식을 위한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 모색 -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의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도 함께 논의 • 지구촌 기후 문제와 언론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 - 각국의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들여보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언론의 역할 논의 -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와 정책을 소개, 환경 보존 노력을 전파

※ 세계기자대회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으로 시행됩니다

개회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평화와 희망을 제시하는 공론의 장 되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세계기자대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각국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창립되어 올해로 57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자 단체로 전국 195개 언론사 1만 1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5대 강령 중 하나인 '국제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돕는다'는 강령에 따라 1966년 국제기자연맹 가입을 시작으로 국제 기자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는 매년 전 세계 언론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세계기자대회를 개최했고 어느덧 올해로 9회째에 이르렀습니다.

세계기자대회는 2019년까지 7년간 전세계 언론인들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로 초청해 분단의 현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의 미래를 논하고 상호 친목의 장을 확장시키며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언론인들의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분단 현실을 보여드리지 못해

개회사

아쉽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성별, 피부색, 이념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진실을 알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저널리스트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 온라인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자대회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에 맞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을 주제로 첫날 컨퍼런스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전세계 사회, 환경, 생명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기후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해 '지구촌 기후문제'를 주제로 두 번째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비록 온라인상으로나마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 만큼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조언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참가자들 모두 뜻깊고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원 드리며 올해의 컨퍼런스 내용을 동료 기자들과 공유하고 자국민들께도 널리 알려 지구촌의 당면 과제들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여러분 모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자협회 소개

역사를 기록하는 한 줄의 글,
현장의 생동감을 전달하는 사진과 영상,
소명과 열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들,
그 기자들 뒤편 언제나 한국기자협회가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8월 17일 일선기자들의 자발적인 공감대 속에 탄생해 올해로 5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조국의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 언론자유 수호 투쟁, 회원의 친목과 권익옹호,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 국제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라는 5대 강령을 채택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은 5대 강령은 한국기자협회의 존립 이유이자 지향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현재 전국 195개 회원사, 1만 1천여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단체입니다. 협회는 매주 5만부의 '기자협회보'를 발행해 언론계 이슈를 생산하고 각종 주요 현안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포럼과 세미나 개최, 기자들의 장단기 연수, 국내 대학원 학비 지원 등을 통해 언론인의 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가장 역사가 깊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일선 기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품격 높은 기사 생산을 유도해 저널리즘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정보(일명 가짜뉴스) 퇴출을 위해 자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자들의 윤리 의식 고취를 위해 언론윤리강령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언론단체와도 공조해 언론의 신뢰 회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언론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에 기자들을 파견해 재능기부 저널리스트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고, 매년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전국학생논술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회원의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해마다 전국기자추진대회와 기자등반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세계 언론인들과 함께하는 유대강화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1966년 IFJ(국제기자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1993년 중국기자협회, 1994년 베트남

한국기자협회 소개

기자협회, 2013년 인도네시아기자협회, 2014년 몽골기자협회, 2015년 불가리아 기자협회, 2018년 러시아 기자협회와 상호 기자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자협회와도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기자들과의 정기교류는 국가 간 외교를 뛰어넘어 민간외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기자협회는 더 많은 외국 언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2001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기자연맹(IFJ) 정기총회와 2003년 동아시아기자 포럼, 2005년 아시아기자포럼, 2007년 국제기자연맹(IFJ) 특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2012년에는 한국·중국·베트남 3국 기자들이 함께하는 콘퍼런스를 연 바 있으며, 국경없는 기자회(RSF) 등 국제언론단체들과 유기적으로 교류하며 언론자유와 세계 기자들의 권익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세계기자대회를 통해 각국의 기자들과 연대를 강화함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치료와 종식 이후의 사회를 전망하고 인류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또다른 지구촌의 문제인 기후환경의 현실과 대응방안을 함께 토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자협회 제47대 김동훈(KIM DONG HOON) 회장과 집행부는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매의 눈으로 권력을 감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널리즘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 그리고 민족의대 단 결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는 앞으로도 국제 언론인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신뢰와 우정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시대를 앞서가는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18(Sun.)-20(Tue.) April 2021



콘퍼런스 I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과 언론의 역할

- 약력
- 발표자료

2021년 4월 19일(월)

컨퍼런스 I

주 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망과 언론의 역할	
좌 장	정민호 코리아타임스/ 한국기자협회, 디지털 콘텐츠 팀장/ 국제교류분과 위원장, 한국	133
발제자	마흐뵐 모세드 The Daily Star, 뉴스에디터, 방글라데시	134
	판 레테아 Post Media, 부편집장, 캄보디아	137
	지하오 장 China Daily, 과학기술부 기자, 중국	140
	플레밍 잇첸 Politiken, 칼럼니스트, 덴마크	143
	루이스 베이로 Listin Diario, 에디터, 도미니카공화국	146
	아쉬라프 엘달리 Silkroad Literature Series, 편집국장, 이집트	149
	토비아스 카이저 Die Welt, 유럽연합 특파원, 독일	152
	란지트 쿠마르 독립언론인, 전략 부문 분석가, 인도	155



2021 세계기자대회

2021년 4월 19일(월)

컨퍼런스 I		
발제자	모하메드 나시르 인도네시아기자협회(PWI), 공공서비스부문 디렉터, 인도네시아	158
	프랭크 맥넬리 The Irish Times, 칼럼니스트, 아일랜드	162
	안토니오 모스카텔로 Askanews, 기자, 이탈리아	165
	전영일 통계청 통계개발원, 원장, 한국	167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국	169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 한국	171
	노릴라 모흐드 다우드 Malaysia World News, 선임 에디터, 말레이시아	175
	라파엘 로블레도 Nest Taller de Communication, 편집부국장, 멕시코	179
	간투야 간부루게드 Normadic Content LLC, 대표이사, 몽골	182
	쿠베르 찰리스 Karobar National Economic Daily, 편집장, 네팔	186

2021년 4월 19일(월)

컨퍼런스 I		
발제자	아부바카 아담 이브라힘 Daily Trust Newspaper, 특집기사 에디터, 나이지리아	188
	라홀 아이자즈 프리랜서, 기자/작가/영화제작자, 파키스탄	190
	압델라만 크라이쉬 팔레스타인언론인연합, 국제협력 코디네이터, 팔레스타인	193
	고레디 마리아 케네스 Post Courier, 정치부 선임기자, 파푸아뉴기니	196
	벤자민 페르난데즈 보가도 Radio Libre, 디렉터, 파라과이	198
	이상현 스푸트니크, 한국 주재기자, 러시아	201
	키르티코른 블로우 Thai PBS World, 편집국장, 태국	205
	짐 보멜라 국제기자연맹, 전 회장, 영국	209

※ 발표자로는 국가명 알파벳 순으로 나열되었습니다.

좌장



정민호

코리아타임스/ 한국기자협회
디지털 콘텐츠 팀장/ 국제교류분과 위원장
한국

◎ 이력

- 코리아타임스 디지털 콘텐츠 팀장
-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장



2021 세계기자대회



발제자



마흐뵘 모셰드

The Daily Star
뉴스에디터
방글라데시

◎ 이력

- Bdnews24.com 기자 역임
- 아시아저널리즘대학 졸업
- 데일리스타(The Daily Star) 에디터(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언론은 최근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 모든 사태는 지난해 3월 방글라데시에 처음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코로나는 2020년 3월 말 전국적인 폐쇄조치로 이어졌다. 모든 교육기관은 문을 닫았고, 기업 활동은 중단됐다. 수백만명이 실업자로 내몰렸다.

코로나 펜데믹은 비상시 대책이 전혀 없었던 언론기관의 책임자들의 허를 찔렀다. 대부분의 언론매체는 구성원들의 재택근무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몇 주만에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민간 TV방송이든 일간 신문이든 모든 매체의 광고 수익은 급감했다. 전국단위든 지역단위든 모든 일간지의 발행부수도 급감했다. 신문판매협회에 따르면, 작년 3월 펜데믹 발생 후 방글라데시 일간지 발행부수가 50~70%까지 급감했다. 다카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7곳은 종이신문 인쇄를 중단했다.

수익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부분 매체들은 직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다. 금융위기때마다 기업체들이 흔히 채택하는 일반적인 방식 그대로다. 방글라데시 언론인

마흐뵘 모셰드

플랫폼인 'Our Media Our Rights'에 따르면 작년 4~12월 약 1100명의 언론사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팬데믹이 초래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언론인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 결과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을 찍기 위해 현장에 나가야 했던 방송국의 카메라맨과 사진기자들이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했다.

언론사 직원들은 바이러스에 바로 감염됐다. 지난해 11월 제네바에 본부를 둔 'Press Emblem 캠페인' 발표에 의하면, 팬데믹 발생 약 7개월 후 방글라데시는 언론인 중 코로나 관련 사망률이 세계 5위에 올랐다. 적어도 37명의 기자가 코로나19 증상으로 죽었고 동시에 1천명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Our Media Our Rights는 올해 3월까지 언론인 코로나 사망자를 45명으로 집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1161명의 기자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다카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언론인들이 본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마지못해 전직을 생각한다. 최근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91명 중 71.07%가 영원히 이 직종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언론인의 42.09%는 그들의 직업과 관련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한 사립대학의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팬데믹이 유행하는 동안 생겨난 유일한 긍정적인 측면은 일부 신문들이 기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직원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였다. 다행히도 이는 언론인들의 새로운 업무수행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 같다.

계속되는 재정 위기로 인해 신문들은 사업모델 변화를 꾀하고 있다. 웹사이트 광고에서 수익을 늘리는 것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다른 어떤 매체보다 TV가 훨씬 인기 있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이러한 방법은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마흐똌 모셰드

방글라데시 언론이 온라인 확장에 따른 혜택을 누리려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거대기업이 자사 플랫폼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뉴스 업체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는 이미 관련 법을 제정한 호주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이 법률은 언론기관이나 단체가 테크 대기업과 지급계약을 협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제자



판 레테아

Post Media
부편집장
캄보디아

◎ 이력

- 프놈펜왕립대 크메르예술학 졸업
- 포스트미디어 부편집장

WHO 캄보디아 사무소에 따르면 2021년 2월 20일 캄보디아 지역감염 이후 3월 30일 기준 코로나19 사망 11명(여 4명, 남 7명), 확진 63명으로 팬데믹 상황이 유행 기로에 놓였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40명이며 1249명은 치료 중이다.

3월 28일 사망 2명, 확진 265명 증가함에 따라 WHO 캄보디아 사무소 리 아일란 소장은 트위터에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기는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다. 모두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썼다. 그는 또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망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월 20일 지역감염 사태는 팬데믹이 시작한 이래 캄보디아가 직면한 세번째이자 가장 긴 지역사회 감염 사례다. 보건부에 따르면 3월 28일 하루에만 2월 20일 지역감염 사태로 인한 86건의 추가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신규 확진자가 1708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86건 중 11건은 생후 18개월 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감염사례로 나타났다.

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캄보디아 프놈펜시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다. 가령 혼잡한 장소를 피하기 위해 외식을 하거나 시장에서 장을 보는 대신 음식배달 서비스

판 레테아

이용이 증가했다. 또한 캄보디아 국민들은 캄보디아 정부 지침, 보건부 3대 예방조치(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로 청결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3대 금지조치(밀폐된 공간에 머무르지 않기, 혼잡한 장소 피하기, 약수나 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하기)를 일상생활에서 준수하기 시작했다.

한편, 중국이 기증한 시노팜 백신을 2차례에 걸쳐 캄보디아 국민에게 접종했으며, 정부는 최근 150만회 분량의 중국 시노백 백신을 구입했다. 시노백과 시노팜 모두 중국산이지만 제약사는 각각 다르다. 또한 3월 10일부터 프놈펜시, 칸달주, 프레아 시아누크주에서 6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 백신(코비실드)의 무상 접종에 들어갔다.

캄보디아 코로나19 상황 임계점 도달

WHO 캄보디아 사무소는 주말 동안 265명 확진자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캄보디아 코로나19 상황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기증한 시노팜 백신 총 70만회분 가운데 40만회분은 보건부, 30만회분은 국방부가 수령했다. 띠어 반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국방부가 수령한 30 만회분으로 1단계에서 제외됐던 군인과 그 가족이 접종될 것”이라고 했다. 왕 웬티안 캄보디아 주재 중국대사는 “중국의 백신 기증은 중국과 캄보디아의 우호 협력의 결실로, 중국 백신이 코로나19로부터 캄보디아 국민 건강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왕 대사는 “전세계 60개국 이상이 긴급사용 승인 후 자국민에게 중국산 백신을 투여했다”고 했다. 중국은 현재까지 80개국과 국제기구 3곳에 코로나19 백신을 원조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1차 공급한 시노팜 백신 60만회분은 2월 7일 도착했으며, 3월 31일 도착분까지 총 130만회분에 달한다.

맘 분행 보건부 장관은 “60세 이상 중 대다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백신 접종 지정기관에서 대기 행렬이 길게 생기거나 인파가 몰려 혼잡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보건부는 3월 7일 한때 예방접종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은 프놈펜시, 칸달주와 프레아 시아누크주의 최대 취약 계층이다.

판 레테아



3월 23일, 프놈펜 포르 센체이(Por Senchey) 지역에 위치한 포첸통(Pochentong) 병원에서 중년 여성이 아스트라 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습니다(사진: Heng Chivoan)

발제자



지하오 장

China Daily
과학기술부 기자
중국

◎ 이력

- <차이나데일리> 과학기술부 기자(현)
- <People's Daily> 자매 <Global People Magazine> 전 기자(2015-2016)
- Columbia University 석사, UC버클리 졸업(정치학)
- 중국저널리즘상 수상(2018)
- 과학스타누스 수상(2019, 중국과학아카데미)
- 중화인민공화국 70주년 훈장(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1년 전 1100만명이 인구와 3500년 역사를 지닌 나의 고향 우한에 악성 질병이 덮쳤다. 우한은 작년 1월 23일 세계 최초로 봉쇄령이 내려진 대도시가 되었다. 중국 최대 영자 신문인 <차이나데일리>의 과학기술 담당기자로써, 국내외의 추측, 오보, 음모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 과학의 참호를 지키는 것이 내 의무였다.

필자는 코로나19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상황을 본 적이 없다. 해답을 원하는 대중들의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끝없이 변화하면서 때로는 증명할 수 없는 현 상황의 본질 사이에는 기묘한 불협화음이 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인 이야기를 쓰는 것은 전조등 하나만을 켜 채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행히도 동료들과 편집진은 내가 글을 쓸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주었다. 차이나데일리는 일면 알수록 두려움이 줄어든다고 믿는다. 그래서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공포가 아니라

지하오 장

투쟁을 보고해야 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과 파트너십을 수용해야 했다. 지정학, 인종차별, 고정 관념의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팬데믹의 절정과 그 복잡성에 대한 중국의 노력을 더 깊이 이해하면 전 세계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임상 증거 없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지 한 달이 지나 2월 우한의 한 여성이 온라인에서 구입한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과다 복용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의사의 지도 없이 해당 약물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국가 지도자들이 차이나데일리를 읽는다면 역사가 달라질 지도 모른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가 주요 장기에 미치는 증상에 이르기까지 청년층과 노년층에 장기적, 잠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3개월 후 영국 국립보건연구원의 보고서가 우리 기사 중 일부를 인용했다.

우리는 객관적인 진실, 과학정신과 과학적 방법을 존중한다. 따라서 의료전문가들이 종종 우리 기사를 인용한다. 예를 들어 저명 의학저널인 <란셋>(Lancet)에 게재된 코로나 임시 병원에 대한 연구는 논문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신문의 세 기사를 인용했다. 우리는 또한 칭화대, 북경 협화대의대와 협력하여 '중국의 코로나19 퇴치'라는 제목의 두 개 언어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중국의 결정과 관행 및 희생을 전 세계 의료진과 공무원이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오늘날 중국을 필두로 호주, 베트남,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일부 국가들은 국내 바이러스를 성공적으로 통제했다. 하지만 세계는 아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를 목격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고, 프랑스가 최근 제3차 봉쇄에 들어갔으며,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책임자가 공영 방송에 나와 국민들에게 "곧 닥칠 비극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을 받고 방역조치를 지켜 달라"는 애끓는 간청을 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인의 삶과 경제, 그리고 미디어에 팬데믹이 엄청난 혼란을 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코로나 관련 보도에 대해 둔감해졌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저널리즘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명하다. 간단히 말해 코로나 19의 위협이 그다지 시급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임무는 끝난 것이 아니다.

지하오 장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백신 프로그램을 시작함에 따라 공공보건 영역에서는 정확한 최신 정보가 필요하다. 백신 차별, 민족주의 및 무관심은 팬데믹을 확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다. 어둠의 끝에 빛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 문제들의 해결에 미디어가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사람들은 또 바이러스의 기원 및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생리학 및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인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바이러스와 공존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디지털 격차, 경제 회복, 개인정보 보호, 과학적 소양, 윤리적 연구 관행 등은 모두 뉴노멀시대에 미디어가 세심하고 지속적으로 조명해야 하는 주제들이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저널리즘의 소명은 오보와 허위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싹 트는 인종차별과 증오라는 유해한 잡초를 제거하는 일일 것이다. SNS 상에서 공유되는 거짓은 진실에 빛을 지며, 전 세계에서 아시아 커뮤니티에 대한 폭력적인 증오범죄가 증가하는 것처럼 조만간 누군가가 현실에서 실제 피로써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지도 모른다.

모든 오보가 잘못이라는 걸 증명하는 일이 우리 책임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거짓에 직면했을 때 그 거짓이 마음을 오염시키고 분노를 부추기지 않도록 합리성과 비판적 사고를 주입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이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시대 우리 모두 건강에 유의하고, 항상 겸허하고 호기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제자



플레밍 잇첸

Politiker
칼럼니스트
덴마크

◎ 이력

- 칼럼니스트 겸 작가
- 덴마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일간지 <Politiken>과 텔레비전 프로그램 'DR2/Deadline'과 'TV2 News'에서 동아시아 기행문과 칼럼 등을 쓰고 있음
- 코펜하겐대 북유럽아시아연구모임(NIAS), 덴마크 국방아카데미(DDA), 덴마크외교정책학회(DFPS) 등에서 동아시아와 동남아 관련 연구 및 강의

코로나19로 인해 언론이 겪은 혼란과 위기의 원인 중 하나는 가짜뉴스와 일부 집단의 악용이었다. 이 위기는 코로나로 급증했지만, 미디어산업은 이미 21세기 들어 콘텐츠의 디지털화, SNS 등장, 모바일 소비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수익 창출에 변화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인터넷의 저렴한 유통비용과 손쉬운 접근성은 전통 미디어의 종전 방식의 수익 창출은 가파르게 효과가 줄어들었다. 특히 지역 언론사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미디어산업이 양질의 정보를 수용자가 손쉽게 전달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금, 그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세계 인구 80~90%가량이 주당 24시간 안팎을 뉴스 및 연예 관련 콘텐츠에 소비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 주제들이 고품질 콘텐츠를 생산, 제공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높은 소비율은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플레밍 잇첸

또 하나 특징적인 변화는 유료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유료고객이야말로 미디어기업의 재정 안정과 지속가능에 핵심요소라고 말한다. 더욱이 고품질 콘텐츠에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의 유료구독 비율이 중장년층보다 높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꼽힌다. 연예콘텐츠 유료독자의 경우 16~34살에서 60%가 넘는 반면, 55살 이상의 경우 22%에 그쳤다. 뉴스를 돈 주고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청년층에서 더 높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 크다. 왜냐하면 이들 청년세대는 인터넷을 무료로 향유한 세대인 까닭에서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자체격리 및 강제격리로 인해 기존에 미디어시장을 주도했던 스포츠 및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소비가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소비 자체는 증가한 점 또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뉴스를 통한 시의적절한 정보제공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콘텐츠 생산 및 소비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우려되는 대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소득층 및 저학력층과 고소득층 및 고학력층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의 불평등과 불균형 문제다. 콘텐츠의 유료화가 가져오게 될 부정적인 측면인 것이다. 미디어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기존 광고주에서 콘텐츠 사용자로 넘어오면서 불가피한 측면이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 타개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정부개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눈'과 '지갑'을 두고 미디어 기업들이 벌이는 '전쟁'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소위 '슈퍼경쟁자'가 미치는 영향력이 간과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미디어 기업을 함께 운영하는 이들 거대 복합기업들은 자사의 다른 사업 부문의 고수익 창출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활용하기도 한다. 물론 미디어 산업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그런 경우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지만, 이들 거대 복합기업은 자칫 미디어 지형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플레밍 잇첸

한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이른바 '탈진실'(post-truth)이 설 자리는 없을 것이다. 대중에게 호소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 진실보다 감정하는 '포스트 트루스'는 정치적 목적 달성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시대에 거짓 정보를 유통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치가들에게도 무모한 일이라는 사실을 중남미와 심지어 미국의 일부 선동가 정치인들을 통해 솔하게 확인한 터이다.

지난 4년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가짜뉴스를 쏟아내면서 시민들은 팩트에 충실한 언론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허위정보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은 도리어 진실(truth)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정치권력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과학계는 무엇을 조언하는지 편견 없이 신속 정확하게 보도할 책무는 오로지 언론에 있다.

생사가 걸린 문제를 함부로 다룬다면 사회적 신뢰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를 신봉하는 사람도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하기 마련이다.

인류사회가 허위정보와 가짜뉴스라는 공동의 적에 함께 맞서고, 언론이 특히 책임감 있게 보도한다면, 저널리즘의 신뢰도는 어느 때보다 증대할 것이 틀림없다.

발제자



루이스 베이로

Listín Diario
에디터
도미니카공화국

◎ 이력

- 하바나대 법학 학사
- <라디오하바나쿠바나> 특파원 역임
- '카오나보 데 오로' 수상

[전염병에 대한 기억]

코로나19와 그 변종으로 도미니카공화국의 해변과 강, 그리고 공공장소엔 경우 없는 사람들이 마구 버린 일회용 마스크 수백 장이 넘쳐나고 통행금지, 생활 속 각종 규제, 재택근무, 실업 등을 통해 사람들은 잔뜩 위축돼 있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요즘 통금시간이 이른 새벽시간으로 조정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도 규제가 많이 풀렸다. 재택근무는 7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만 적용되며, 업무시간도 정상화되었다.

코로나19 덕분에 도미니카공화국 국민들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손 위생과 손 소독제 사용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들었다.

의사, 교육계 인사, 성직자, 군경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은 시노백 백신을 접종했다. 작년 한 해 90만 명의 실업자와 3,257명의 사망자, 25만15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경기침체도

루이스 베이로

상상 이상이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공공의료원과 사설병원의 집중치료실 병상은 감염자를 다 수용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사망자나 감염자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제대로 분류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은 호흡기 질환과 비만예다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60세 이상의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나와 있지 않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우리 도미니카공화국에도 침투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경험적으로 막연한 낙관주의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법을 우리는 배웠다.

공격 멈추지 않는 바이러스

동료기자 루디 곤잘레스는 우리 신문에 범미보건국(Pan American Health Office) 책임자의 경고를 실었다. "제한조치를 완화 혹은 해제할 경우 바이러스 확산이 가속화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인접 지역에도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각국은 해제조치로 사망자 증가를 감수할지, 해제를 통해 경제회복을 꾀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도미니카공화국 정부당국은 코로나19가 통제될 때까지 생산 및 상업과 교육기관 등의 재개를 제한한다는 입장인 반면 기업이나 상공인, 근로자, 정치권, 경제학자, 언론계 등은 활동재개 및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

당국은 일상 활동을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회복할 수 없는 파산으로 인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할 경제활동 인구들의 압력에 양보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충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1100만 국민 중 대다수는 대규모 감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일상생활의 격리와 고립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국민은 정부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통금시간에 거주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20만 명가량이 당국에 의해 체포돼 높은 벌금을 내야 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론인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소재가 되었다.

내가 일하는 Listín Diario에서는 재택근무 직원들이 영화, 시리즈물, 독서 등 다양한 주제를

루이스 베이로

농고 자주 대화한다. 또 가족은 어떻게 지내는지, 격리생활은 어떤지 등등. 그뿐 아니다. 우리들은 운동과 음식 레시피, 게임 등으로도 화제를 넓혀간다. 격리생활의 지루함과 고립감을 벗어나려는 몸부림과 다름 아니다.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금기처럼 돼버렸다.

재밌는 것은 우리 신문에선 코로나 이후 '친절 베풀기'를 강조하고 있다.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 불신이나 증오, 비난의 눈길 대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보호, 그리고 책임의식을 나눠지자는 뜻에서다.

발제자



아쉬라프 엘달리

Silkroad Literature Series

편집국장

이집트

◎ 이력

- 아시아기자협회 회장(현)
- 쿠웨이트 <알 아라비 매거진> 편집장 역임
- <로이터통신> 카이로 지사 근무
- 만해문학상(2014)
- Arab Journalism Award 수상(2015)

[백신, 포스트 코로나시대, 그리고 저널리즘]

역사 이래 수세기에 걸쳐 인류는 세계를 뒤흔든 질병과 전염병을 겪어왔다. 근대에 이르러 신문(1690년)을 시작으로 라디오(1901년), 텔레비전(1927년) 등 미디어 플랫폼과 1960년대 말 등장한 인터넷이라는 가상 미디어를 통해 인류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

언론은 처음 등장한 이후 각종 질병 추세와 전염병 발생 등을 추적해 왔다. 또 의료인과 과학자들의 질병 및 전염병 관련 치료법 개발과 치료제 연구 등의 끊임없는 노력을 조명해 왔다. 독자들은 언론을 통해 새로운 과학지식에 접근하며, 의료분야 역시 관련 분야 언론인들 덕분에 새로운 의학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아쉬라프 엘달리

이 같은 언론과 의학 및 의료인 사이의 메커니즘 속에서 2020년 인류와 저널리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서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대규모 감염병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 와중에 가짜뉴스는 과학과 논리에 근거하지 않은 음모론을 퍼뜨리며 의료인, 정치인 심지어 성직자의 말까지도 왜곡하며 충격적인 루머와 잘못된 수치를 일반 대중에게 전파했다.

저널리즘에 있어 허위 정보는 마치 신체에 기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는 암세포와 같다. 당연히 엄중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기자협회 주최 세계기자대회의 주제 중 하나가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지금 언론인은 과거를 되돌아보고 저널리즘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진실의 백신'을 접종받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짓이 스며들 수 없는 믿음직한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

이에 필자는 의료 및 보건 뉴스 은행과 같은 가상의 지식 공간 구축을 제안한다. 뉴스 통신사처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은행은 가느다란 실개천에서 시작해 도도한 물줄기가 흐르는 큰 하천과 같이 언론인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의료정보 은행은 정확한 의학 관련 뉴스의 출처로 인정받는 세계보건기구 등 권위있는 주요 국제기구에서 소스를 얻으면 된다. 그리고 뉴스에 정확한 출처 등을 표기한다면 그 뉴스가 가짜가 아니란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진위 여부가 불확실한 출처 불명의 뉴스를 놓고 고민할 이유도 없게 될 것이다.

이처럼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정보은행은 가짜뉴스, 루머, 거짓 처방, 비과학적 인용 자료 등으로부터 위협받는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필자는 50년 전 초등학교 시절 '과학과 건강'이라는 제목의 교과서를 공부한 적이 있다. 그리고 당시 내 메모장 뒷표지에는 "밥 먹기 전과 후에는 손을 꼭 씻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인류가 처한 자금의 급박한 상황을 바라보던 중 내 머릿속엔 이 두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과학교과서가 우주, 기술, 기계 등에 주로 관심을 쏟은 결과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을 간과한 채 인류는 대규모 감염병 시대에 직면하고 만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헤아릴 수

아쉬라프 엘달리

없이 많은 미디어가 존재하며, 앱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방대한 양의 뉴스가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때 온라인 뉴스네트워크, 신문, 라디오, TV프로그램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의학 관련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뉴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에게 전달할 책임은 바로 우리 시대 언론인의 몫이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기반을 둔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이다. 이에 필자는 인류의 건강과 관련된 정부 당국, 사회조직, 국제기구 등이 가짜뉴스와 싸우고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진실뉴스를 제공하는 데 동참하기를 요청한다. 새로운 보건의로 정보은행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언론인에게 가장 필요한 대안이자 '진정한 백신'이 될 것이다.

- 참조 - https://youtu.be/T40EynJTi_U

발제자



토비아스 카이저

Die Welt
유럽연합 특파원
독일

◎ 이력

- Die Welt 유럽연합(EU) 특파원
- 뮌헨대학교 박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언론인들은 전염병 사태로 인해 저널리즘에도 큰 위기가 닥쳤음을 깨닫게 됐다. 그러나 좋은 소식도 있다. 코로나를 통해 언론인은 미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 먼저, 대중들은 전염병 사태에서 양질의 저널리즘을 갈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염병 사태 동안 가짜뉴스가 범람했지만, 절대 다수 대중은 양질의 정보와 신뢰할 수 있는 출처 그리고 신뢰도 높은 공영방송에 채널을 맞췄다. 즉 양질의 언론 및 언론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굳건히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나아가 전염병 사태는 인류사회에 디지털 문화를 더욱 깊숙이 도입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기술 활용법을 배우게 됐다. 이는 머지 않은 미래에 디지털 저널리즘이 유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코로나는 이러한 미래를 앞당겼을 뿐이란 평가도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널리즘을 혁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저널리즘 혁신이 그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언론인은 부단히 배우고 또 익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토비아스 카이저

언론인에게 가르침을 제공하는 주체는 바로 데이터와 언론 이용자들이다. 오랫동안 우리 언론인은 보도 대상이 현안과 관련성을 갖는지, 보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 홀로 판단해왔다. 다른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지만, 스스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수차례나 기사를 써온 동료 기자도 여럿 있다. 물론 보도 내용이 현안과 관련을 가졌지만 말이다. 저널리즘은 대중에게 현안을 설명했고,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소개했으며, 대중의 흥미를 자극했다. 이런 식으로 특종이 이뤄졌다. 대중이 보도 내용에 흥미를 갖는지, 보도 내용이 현안과 관계되는지, 보도 내용이 지루한지 그리고 대중이 편집진만큼이나 특종에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별 고민 없이 구독 서비스와 광고를 통해 언론사는 수익을 창출했다.

이제 이런 시절은 끝났다. 나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언론사 비즈니스 모델에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은 두렵지만, 언론인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잡게 만들 기회가 온 것이다. 오늘날 우리 언론인은 언론 이용자가 디지털상에서 어떤 콘텐츠에 관심을 갖는지, 어떻게 언론에 접근하는지, 어떤 콘텐츠에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해, 언론인이 어떤 분야의 정보를 다루주기를 언론 이용자가 바라는지, 어떤 주제가 현안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언론 이용자가 생각하는지, 어떤 식의 보도 방식을 언론 이용자가 선호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됐다. 이들 정보 모두는 언론 콘텐츠를 개선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 틀림없다.

이와 함께 우리 언론인은 대형 디지털기업 아니 기왕이면 초대형 디지털기업으로부터 배울 점을 많이 찾아내야 한다.

알다시피 우리 독일인은 보수적이다. 성인의 8%만이 디지털 콘텐츠에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 디지털 구독자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신규 구독자 확보는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장기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기업은 "(독자들의) 이탈률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구독자가 계속 관심을 두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스스로 고민하며 답변을 찾아야 한다.

답변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본질은 결국 이용자의 마음으로 귀결된다. 필자가 소속된 Die Welt를 예로 들어 보자. 최근 우리 회사는 기사 아래의 댓글 섹션을 막았다. 대신 유료 구

토비아스 카이저

독자만 댓글을 달 수 있게 처리했다. 효과는 놀라웠다. 많은 사용자가 댓글을 달기 위해 구독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토론의 질이 향상됐다.

이런 식의 실험은 저널리즘 업계에 흥미를 불러넣었다. 다수 언론사가 팟캐스트, 비디오, 앱, 멀티미디어 스토리, 온라인 채팅 등 새로운 형식의 서비스를 계속 실험하고 있다. 물론 그 밖의 실험적인 서비스도 존재한다.

우리 언론인들은 독자에게 영감을 주려 하지만, 역으로 독자로부터 영감을 받기도 한다. 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펼쳐나갈 미래는 진정 흥미롭기만 할 것 같다. 무엇보다 우리 언론인은 서로한테서 배워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편집팀은 편집팀장처럼 생각해야 한다. 다수의 디지털 구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언론사는 수많은 독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위해 고민한다. 뉴스룸은 KPI(핵심성과지표)를 중요하게 취급한다. 여러 편집팀은 자체 목표에 따라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애쓴다. 그 결과 경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웹사이트에서 가장 주목도 높은 자리를 획득하고, 가장 눈길을 끄는 헤드라인을 선정하고, 가장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한 경쟁이 펼쳐진다. 하지만 경쟁 과정에서 극단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스톡홀름의 주요 언론사의 경우 모든 기자들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다. 각자가 자신만의 목표와 기준을 추구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작성한다. 언론인이 제공하는 모든 기사가 측정되고 평가에 노출된다. 이 지경이 될 정도로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는 대신 우리 언론인이 서로로부터 배울 점을 찾는다면 코로나 위기뿐 아니라 언론인이 당면한 위기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동의하시는가?

발제자



란지트 쿠마르

독립언론인
전략 부문 분석가
인도

◎ 이력

- 인도 독립언론인
- 신문 및 온라인뉴스에 국제 정세 관련 칼럼 기고
- 1980년 언론계 입문 외교안보 및 국제문제 취재 및 논평
- <Hindi Daily> <Navbharat Times> 등 외교부문 전문기자 역임
- <인도의 핵 정책> <남아시아 연합> 등 저술

국민소득이 높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조차 코로나19가 자국민의 목숨을 빼앗고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코로나19는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가 간 정치 및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는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전 계층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광범위하며, 향후 역시 세계인들에게 불확실성에 몰아넣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는 계속 확산하고 있다. 우리 인도 역시 코로나19 상황 한가운데 있다. 각국은 경제 및 사회활동을 정상화하고, 일자리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여전히 불확실하기만 하다.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어떻게 회복할지 예단하는 것은 무방한 노릇일지도 모른다. 세계 경제는 경제활동과 수요 회복으로 점차 제 모습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시민들의 사회, 경제, 정치 생활은 정부정책과

란지트 쿠마르

프로그램에 따라 나라별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도 물론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매체와 언론인이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정부 정책 수립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 역할 가운데 하나다.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이 좀더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여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가의 제반 부문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인식을 높이는 것도 언론의 중요 책무 중 하나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발한 지 거의 16개월이 되었다. 이 기간 각국 정부는 국가 역량을 결집해 각자의 방식에 따라 위기 상황에 대처해 왔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 덕분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다.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 하나의 국가나 개별 정부가 채택한 정책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이 시기 우리가 배운 중요한 교훈이다. 언론은 국경에 상관없이 세계정부를 도와 전례 없는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코로나19가 가져온 파괴적인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국가 간 관계와 균형에도 혼선이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인다. 독점 공급자들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이나 부당이득으로 고통받는 국가들이 없도록 대안 산업 및 기술 공급망을 생성토록 유도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 될 것이다.

세계화의 혜택이 몇몇 나라에 독점되고 제조 부문이 퇴보하여 고용과 경제질서가 무너지는 국가도 등장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소수 국가에 의존하는 공급망 체계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독점적인 공급망을 향해가던 세계경제 기반을 뒤엎들어 국제 외교관계를 새로이 형성할 수도 있다.

미중 G2체제와 함께 한국, 인도네시아,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이러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한 것도 하나의 변화다.

코로나19 이후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연합체는 중국을 코로나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확산시킨 장본인으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한 도전은 이미 씨앗을 뿌린 상태나

란지트 쿠마르

다음없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미국 주도의 동맹과 러시아, 파키스탄, 북한, 이란과 함께하는 중국 파워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세계경제와 외교관계에 적잖은 격변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발제자



모하마드 나시르

인도네시아기자협회(PWI)
공공서비스부문 디렉터
인도네시아

◎ 이력

- 아디네고로 멀티미디어교육재단 부회장
- <Kompas> 기자 역임(1989~2018)
- <인도네시아 투데이> 편집위원 역임
- 인도네시아 사이버미디어연합(SMSI) 사무총장 역임

누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언론 역할이 없다고 말하였나? 민주주의의 네번째 기둥으로서 언론은 의료기구나 마스크, 개인보호장비, 백신은 없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이에 대응하는 일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언론은 로드맵에 따른 보도기획을 수립하고 있다. 언론은 정확한 정보가 담긴 뉴스를 통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종합적인 보도기획에 따라, 해석이 분분하지 않도록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언론은 올해 4월부터 12월 사이에 인도네시아 온 국민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언론은 또 관광, 요리, 시장, 업계, 수출입, 항공, 도시활동 등의 모든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뉴스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상심으로 돌리는데 기여하여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삶을 회복하는데 언론이 기여할 수 있는 점들이다.

모하마드 나시르

로드맵 - 2020년 1월

그렇다면 언제부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언론 로드맵이 시작됐을까? 바로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한 2020년 1월부터다. 전세계 신문, 인터넷, TV, 라디오 등의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편집자들이 거의 모두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얻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후 TV, 신문, 인터넷 등 그 누구도 코로나19에 관한 뉴스를 놓치지 않은 채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기획회의에 편집장과 편집자는 물론 전체 기자가 언론인이 참여하기도 했다.

2020년 2월

언론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가 언제 더 심각해져 팬데믹 상황이 될는지 면밀히 보도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국제 항공노선이 폐쇄되고, 육상교통 서비스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록다운을 시행하고, 종교시설과 쇼핑센터가 문을 닫았다.

2020년 3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각국 언론은 악성 바이러스 확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하고,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전했다. 또한 대중이 바이러스를 피할 수 있도록 사망자 및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의 숫자를 매일 전했다.

세계 각국의 신문, 인터넷, 라디오, TV 플랫폼이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 인포데믹(infodemic)이란 많은 사람들이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인도네시아에는 언론이 정보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전통이 있어 정보를 추적하여 거짓정보를 바로잡고 있다. 이것이 언론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책임 있는 언론은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않는다.

2020년 4월

이 무렵 언론은 자가격리의 중요성과 3M으로 알려지게 된 마스크 사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바이러스 확산 방지 행동지침이라고 전파하였다.

모하메드 나시르

지역사회에서는 종교시설, 시장, 역,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3M 즉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시작했다. 많은 회사들은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2020년 5월

이러한 지역사회 움직임은 모두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는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행동지침을 계속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는 확진자를 돌보고 전염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0년 6월, 7월, 8월, 9월

6월부터 9월까지 언론은 정부를 도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지침을 계속 전파하였다. 지역사회의 도움과 민간기업 및 개인 등의 도움으로 마스크와 개인 보호장비가 대중에게 지급됐다. 매체는 뉴스를 통해 개인 보호장비의 이동을 도왔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장비가 보급되었다.

2020년 10월 - 12월

인도네시아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TF팀 팀장인 Donni Monardo는 언론평의회(Press Council)와 협력하여 FJPP(Behavioral Change Journalism Fellowship)를 설립하고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FJPP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5000명의 언론인을 모집하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언론인들은 3M이라는 행동지침을 지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대중매체는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전하고, 코로나19 TF팀은 언론평의회와 함께 상기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언론인은 일정 금액의 사례비를 제공받았다.

2021년 1월

다음은 언론 로드맵을 완료하는 단계다. FJPP프로그램이 완료되었지만 언론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계속해서 백신접종을 권유하고 있다. 백신접종에 대한 찬반의견을 대중에게 전하여 대중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언론의 목표다.

모하메드 나시르

2021년 2월, 백신

2021년 '언론의 날' 행사를 담당했던 인도네시아기자협회 회장은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에게 "술선수범하여 백신을 맞겠다"고 청하였고,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였다. 1단계로 자카르타, 보고르(Depok), 데벡(Depok), 땅그랑(Tangerang), 브카시(Bekasi) 소재 5512명의 언론인이 백신접종자로 등록하였다.

2021년 2월 25-27일 인도네시아 보건부 및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수천명의 언론인이 언론평의회 및 언론협회와 협력하여 자카르타 스나얀(Senayan) 겔라라 붕 카르노(Hall A Basket Gelora Bung Karno)에서 백신을 접종하였다.

이러한 언론평의회 등의 협조를 통해 언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일반 국민 역시 백신 접종을 주저할 필요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었다.

2021년 3월, 백신의 확산

차후 뉴스를 통해 언론은 모든 연령의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했다.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전 지역에서 연령제한 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2021년 4월-12월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이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 언론은 계속해서 백신접종을 유도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언론은 정상화된 분위기도 조성하기 시작했다. 관광, 요리, 시장, 업계, 수출입, 항공, 도시활동 등의 모든 경제활동을 뉴스에서 다뤄야 한다.

제대로 된 기획이 없다면 코로나19 대응에 언론은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하는 정부 및 코로나19 TF팀, 보건부 그리고 모든 유관기관의 노력에 상응하는 보도기획과 로드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발제자



프랭크 맥넬리

The Irish Times
칼럼니스트
아일랜드

◎ 이력

- 아이리시 타임즈 칼럼니스트
- 더블린시립대 언론학 석사

20년 전 <아이리시 타임스> 편집자가 프랑스 보르도의 지역신문인 <Sud-Ouest> 본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아직 초창기이기는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정보기술혁명이 아일랜드보다 훨씬 앞서 일어나고 있었다. 우리 신문 편집자가 그곳에서 특히 감명받은 것이 있었다. 바로 사무실에 기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기자들은 모두 원격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당시 아일랜드에서는 원격근무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최근 몇년 Wi-Fi 보급 등으로 원격근무는 일상이 되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2020년 3월 어느 날, 우리 회사 편집 담당 1명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았다. 하룻밤 사이에 사전 리허설도 없이 우리 신문은 160년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했다.

애초에는 방역을 위해 48시간 동안만 원격근무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후 스트레스 속에 며칠 밤낮을 보낸 후 직원들은 원격근무가 실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이 연장되었다. 최근 우리는 원격신문 발행 1주년을 맞이하면서 소속 기자들 가정의 주방과 거실이나 창고 등에서 만들어진 1년치 신문 1면 사진을 전면에 실어 기념했다.

프랭크 맥넬리

긍정적인 측면에서 팬데믹은 우리 직업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독자들이 이 결과물, 즉 신문지면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필요로 했는지, 확실한 증거를 제공해 주었다. 재택 근무자나 일시 해직상태 직원이 늘면서 대부분의 다른 신문처럼 우리도 종이신문 판매에 큰 손실이 생겼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갈망하는 사람들 덕분에 온라인 구독자 숫자는 기록적으로 늘어났다.

원격근무와 함께 종이신문 독자에서 디지털 독자로의 전환은 팬데믹으로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다. 물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2년차에 접어들면서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있다. 우리는 가장 비관적인 견해, 즉 '전통적인 저널리즘의 멸종 혹은 그에 준하는 사건'이 아니기를 바래야 한다. 일부 소규모 미디어기업은 이미 그렇게 되었지만 말이다.

한편,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인 바, 좋은 기사들이 이를 이미 증명해주고 있다. "한 배를 탔다"는 정신으로 1년을 보낸 후, 적어도 아일랜드에서는 좀더 부정적인 방식으로 인간 본성이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대량 예방 접종 프로그램이 가속화됨에 따라 최근 아일랜드 언론들은 특권층의 접종순서 새치기 폭로 기사를 특종으로 다루고 있다. 오래된 이야기에 새로운 반전이 더해진 것이다.

유럽에서도 백신 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부유한 국가들이 자국민 생존을 우선시함에 따라 빈곤국의 백신 얻기 투쟁은 앞으로 몇 년간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가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다루어야 한다.

아일랜드 언론의 또 다른 관심사는 미디어 미래와 관련한 국가위원회에 대한 것이다. 물론 이 위원회는 코로나 대응으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의 유산이며, 코로나가 본격화되기 전인 2020년 2월 선거로 선출된 새 정부의 프로그램 중 우선순위 목록 하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다.

이 위원회가 바로 소셜미디어 특히 무료 콘텐츠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제국을 구축한 구글과 페이스북이 해당 미디어가 의존하는 광고 대부분을 독차지하는데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국가가 저널리즘에 재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아일랜드에서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아일랜드 총리도 이에 동의하는 사람 중 하나다. 우리 신문을 소유 운영하는 기업 역시 성명을

프랭크 맥넬리

통해 이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우리 신문의 한 칼럼니스트가 국가지원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정부 지원금은 비판자들로 하여금 우리 신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정치인이 처음에는 선의를 가지고 했더라도, 나중엔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 동료 칼럼니스트는 이를 코로나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PPE-개인 보호 장비'에 빗대어 "국가보조금으로 인한 자체적인 혹은 다른 방식의 검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 보호장비'(Political Protective Equipment)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익살스럽게 표현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가기금이라는 아이디어로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소셜미디어기업이 야기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전통 미디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이번 봄 호주와 뉴질랜드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최악의 코로나 상황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호주 정부는 지난 2월 페이스북이 레거시미디어에서 가져오는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우리 아일랜드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들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 올 가을 관련 국가위원회가 본격 출범할 때면,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믿는다.

발제자



안토니오 모스카텔로

Askanews
기자
이탈리아

◎ 이력

- 이탈리아 뉴스통신사 아스카뉴스 아시아 담당기자
- 이라크전쟁 취재
- 부다페스트, 도쿄 특파원 역임
- <Megumi-Storie di rapimenti e spie della Corea del Nord>(메구미-북한의 스파이와 납치 이야기, 2018), <101 cose da fare in Giappone una volta nella vita>(일생에 한번쯤 일본에서 경험해볼 101가지(2020) 등 저술

나의 조국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국가 중 하나로 코로나19 이후 유럽연합의 자금지원 특히 7500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유럽연합(Next Generation EU)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다. 이 프로젝트의 틀 안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은 지속가능 기술, 환경친화적 산업, 녹색 운송, 상호 연결성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에 합의했다.

이 프로젝트에 연계된 유럽연합 복구기금(Recovery Fund)에 따른 차관 및 보조금 규모는 약 1조8000억 유로에 이른다. 이탈리아는 그 중 2000억 유로 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같은 규모의 자금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계획을 추진중이다. 코로나 위기 이후 이탈리아는 기존 정치권을 대신해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 총재를 지낸 마리오 드라기 교수가 이끄는 거국내각이 지난 2월 수립했다. 드라기 신임 총리는 ECB 총재 시절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채권을 확보해 유로를 안정화 시킨 바

안토니오 모스카텔로

있다. 드라기 총리는 로마뿐 아니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에서도 확고한 평판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유럽을 주도하는 국가는 누가 뭐래도 독일이다.

하지만 드라기 총리 앞에는 두 가지 과제가 놓여있다.

첫째, 백신 접종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백신 접종은 공식적으로 작년 12월 말 시작되었지만, 실제 본격화된 것은 올 1월에 이르러서다. 이탈리아 정부는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앤존슨 외에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등 외국산 제품을 대량 확보한 데 이어 이탈리아 제품인 레이테라 백신에 대한 시험 단계에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백신 접종은 속도가 느린 상태에 있다. 의료체계 문제점 외에 제조사들의 백신 제조 및 배송이 늦어지는 탓이라고 한다.

둘째, 유럽연합 프로젝트와 일치하는 경제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투입 예상 자금은 2000억 유로를 상회하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다. 왜냐하면 과거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자금 지원 프로젝트 당시 실행능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 전력이 있다.

이들 두 과제는 이탈리아에서의 '뉴노멀'을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백신 접종을 통해 이탈리아는 특히 관광산업의 재개를 통해 경제회복에 나설 방침이다.

발제자



전영일

통계청 통계개발원
원장
한국

◎ 이력

- 미국 PSI 데이터과학 연구원장/교수장통계청 통계개발원 원장
- “행정자료의 혁신과 조사방법론” 편집인 (세계적 출판사 Wiley 발간)
- 미국 통계청 (US Census Bureau) 인구통계처 연구처장('11~'19)
- 미국 시카고대학 국립연구원 NORC 조사방법론 수석연구원 ('09~'11)
- 미국 노동부 행동과학 연구관(1991~1999)
- 증거기반정책, 예측과학, 통계조사방법론 등에 관한 110여편의 논문과 서적 저술
- 미시간대학(앤아버), 매릴랜드 대학, 하버드케네디스쿨 정책대학원에서 신문방송학, 사회학, 정부경영학 수학
- 국무총리 직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감염병연구회·미래예측연구회 고문
- 「한국연구재단」 감염병예측모델링 국책연구 기획위원장

[코로나19 팬데믹 지구촌 위기에 대응하는 데이터/과학 기반 저널리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21세기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 현황을 예측하는 것은 20세기 초 전세계를 강타하고 55만명의 생명을 앗아간 스페인독감을 예측하는 것만큼 힘겨운 일이다. 세계의 기자들이 오늘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보도하는 것은 그만큼 도전적인 사명이다. 기자들이 당면한 코로나 시대는 불확실성, 불예측성, 양극화 시대이기 때문이다.

전영일

금년에 코로나 2년차를 맞으면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종의 출현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개발된 백신의 효과를 무색하게 할 위험에 처해있다. 세계의 기자들은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팬데믹을 억제하는 것은 글로벌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있다. 기자들은 지구촌의 정부들이 마스크, 거리두기, 사업체의 폐쇄 등 비약학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다.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각 나라의 특성과 가용한 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 확산 예측 모델링」에 근거해서 내려지는 조치들이다. 과학에 기반한 예측모델링은 증거기반 사회/경제/보건정책 실현의 핵심이다.

세계의 기자들은 당면한 데이터 기반 변혁의 시기에 어떠한 대안을 내놓았는가? 오늘 열리는 2021 세계기자대회는 다양한 국가들이 겪은 코로나19 위기대응을 논의하고, 서로 배우며, 협력의 저널리즘 혁신을 도모하는 장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코로나시대의 변혁을 세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백신의 효과와 비약학적인 조치의 효과와 변화를 선제적으로 측정하는 「데이터 기반 예측의 시대」이다. 둘째로 코로나19 감염자, 중환자실 입원률, 사망률, 회복률 등을 인공지능과 통계과학 및 데이터과학을 활용하여 미리 파악하는 「장단기 예견의 시대」이다. 셋째로 방역의 보건효과, 경제적 영향,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정신건강 등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다재적 예측모델의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대응하는 세계 기자들의 DNA는 무엇인가? 세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로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저널리즘의 회복이다(Data-based Journalism). 신뢰는 투명한 과학적 증거/데이터에서 출발한다. 둘째로 상호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저널리즘이다(Network-driven Global Journalism). 지구는 이미 평면화되고 있다(Flattening globe). 지구촌에서는 어떤 나라도 사회도 더 이상 섬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지구촌 확산이 그러한 변화를 실감하게 하였다. 셋째로 시의적이고/신뢰할만한 저널리즘이다(Agile Journalism that can be Trusted).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시간을 다투는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저널리즘은 신뢰할만한 데이터와 상호협력의 온라인 저널리즘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저널리스트는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여 시의적이고 신뢰할만한 보도를 함으로써 양극화된 지구촌에서 취약계층과 취약국가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는 세계의 기자들이 팬데믹 예측과학자들과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평평해지는 지구촌에서 팬데믹 확산곡선이 평평해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선구자들이라고 확신한다.우리가 더불어 일한다면 예측과학의 도약을 앞당기며 데이터기반 저널리즘의 혁신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약자들을 우선순위에 둔 “인도적인 회복”을 일으킬 수 있을지 않을까?

발제자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한국

◎ 이력

- 학력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학사(1993) 및 석사 (1995)
University of Texas - Austin 심리학 박사(2005, 세부전공: 인지 심리학)
- 주요경력
현)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현) 아주대학교 창의력 연구센터장
전) 중앙심리부검 센터장
전) 서울지방법원 조정위원
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전) 아주대학교 입학사정센터장
전) 삼성HR 자문 교수

[포스트 코로나-접촉의 따뜻함을 다루는 언론]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어떤 삶이 중요해질까를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대답에 필자가 한결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있다. 바로 따뜻함이다.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성은 일정부분 우리사회에 자리잡을 것이다. 원격근무, 원격학습 등이 하나의

김경일

생활방식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대면성에는 상승된 효율성에 비해 온도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온라인 졸업식의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가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지 않은가. 랜선 동창회 역시 무언가 허전하다.

이로 인해 계절은 더 따뜻해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겨울과 같은 차가움을 자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한다. 이것은 기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비대면의 온도감은 어떻게 가능할까? 아파트 현관에 놓인 주민들의 배려에 대한 내용이 좋은 예다. 어느 아파트의 현관 입구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물티슈와 간식, 마스크가 들어 있었다. 상자 위에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어린아이가 꺾꺾 눌러쓴 듯한 손 글씨가 인상 깊었다

“우체부님, 택배기사님. 감염병이 유행하는 지금도 항상 저희 집에 필요한 물건을 안전하게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소독제, 물티슈, 간식이 들어 있어요.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힘내세요.”

별다른 내용이 아닌데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인간관계의 기본원칙인 쌍방 소통조차 이루어 지지 않았음에도 이런 느낌에 모두들 공감하실 것이다. 아마 이 상자를 준비한 주민과 택배 기사는 직접 만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택배기사가 물티슈 하나를 들어서 주머니에 넣을 때, 굴 하나를 집어서 동료들과 까먹을 때 그의 손은 온도와 감촉을 기억할 것이다. 손을 잡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촉이지만, 못지않은 따뜻함은 전달되었다. 온도감은 피부만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만질 수 있는 실존 물질이 감각의 매개체가 되어 준다.

언론이 그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물론, 세상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은 언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지만 더더욱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언론이 따뜻한 소식을 전달해주는 역할에도 매우 중요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간 존재와 생존의 가장 본질적 도구이자 목적은 행복이기 때문이다.

발제자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신경외과 전문의
한국

◎ 이력

한양대 의대 졸업 동 의학박사(신경외과학 전공)

2008년 8월~현재 SBS 기자

• 주요 수상경력

한국방송대상 보도기자상(2014), 민주언론상 특별상(뉴스부문, 2016)

한국과학기자협회 과학기자상(2016)

보건복지부 표창(2017)

한국방송대상 보도기자상(2019), 한국기자상 (취재보도부문, 2019)

• 저서

<지금 잘 자고 있습니까?>(팜파스)

2009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어린이가 독감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새로운 유형의 독감 바이러스 신종플루였다. 멕시코, 유럽과 아시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129개 국가에서 환자가 발생했고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한 한 해 사망자가 1만7583명이나 됐다. 코로나19에 비하면 적지만 당시로는 충격적인 피해였다. 다행스럽게도 예방 백신이 석달 뒤 보급됐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치료약도 그해 투약됐다. 그러나 10년이 넘는 지금도 신종플루는 계절 독감의 하나로 함께하고 있다.

조동찬

우리가 꿈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또 다른 팬데믹 감염병이 도래할 수 있다는 얘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의 교훈은 코로나와 함께할 앞으로의 시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언론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다만, 냉철하게 코로나19의 교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아니 위드코로나 시대에 언론은 방역 성과와 개인 사생활 보호가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가짜뉴스를 경계하면서도 지식인이 범하기 쉬운 제3자 효과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백신이 전 세계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1. K방역 성과와 사생활 보호

대한민국은 코로나 19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 기준,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뉴질랜드, 호주 다음으로 낮고, 사망자도 인구 10만 명 당 2.31명으로 뉴질랜드 다음으로 적었다. 이른바 K-방역이라고 불리는 정책의 성공이다. 적극적으로 검사하고(test), 휴대전화 위치기반 서비스를 토대로 감염자 동선을 추적했으며(trace), 밀접 접촉자를 파악해 격리(track)시켰다. 정부는 3T정책의 감염예방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의료진은 높은 실력을 발휘했으며 무엇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빛을 발했다. K-방역은 지난해 12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감염병 진단검사 기법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되돌아 볼 구석은 있다. 외부에서 발생한 감염병을 막으려면 외부 유입 차단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초기 세계 각국은 차단정책을 시행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외교나 경제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봉쇄정책이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방역 당국은 “봉쇄 정책이 감염병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과학적인 발언이었다. 마스크 공급이 부족하던 때, 한국 정부는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역시 비과학적인 문장이었다. 그러나 언론은 예리하게 짚어내지 못했다. 개인 사생활보호 문제는 더 심각했다. 한국은 2015년 메르스사태를 경험하면서 감염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국가가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감염병특별법’을 만들었다. 확진자의 동선 공개는 법률적 행위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공장소나 식당 등에서 출입 기록을 QR코드

조동찬

등을 통해 국가가 한 달 동안 관리하는 것은 감염병 특별법에 기술되지 않았다. 감염병 차단을 위해서라지만 초법적 지침이었다. 사생활 보호가 누군가에게는 감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언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공익 먼저’ 비판 없이 보도하며, “코로나19에 걸리는 것보다 사생활 노출이 더 두렵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

2. 가짜뉴스와 제3자 효과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가짜뉴스는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악이다. 그러나 사회 혼란이 우려된다고 해서 진짜 뉴스를 통제하려는 시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 백신 접종 후 사망신고 사례 보도에서 이런 시도가 불거졌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노르웨이, 독일을 시작으로 미국과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졌다.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과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 매우 드물었지만, 대중의 관심은 높았다. “백신이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신고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지식인들의 비판이 쇄도했다. 주로 교수, 전문가, 기자 등이었다. 독자와 시청자가 해당 보도를 보고 ‘백신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오해해 백신을 기피할 것’이라는 게 비판 이유였다. 지식인들이 경쟁하듯 비판하면서 ‘백신 접종 후 사망사건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이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게다가 일부 지식인들은 ‘사망 원인은 기저질환’이라며 자신의 SNS에 앞다퉈 포스팅했는데 정부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인들의 행동은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백신 접종 후 사망은 백신과 관련 없다”는 기사의 댓글에는 “기저질환 탓으로 결론 내렸으면서 조사는 왜 하는 것인가?”, “백신 접종 후 사망사건은 모두 기저질환 탓일거야, 앞으로도 영원히”와 같은 불신과 냉소의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코로나 백신 초기 90%에 달하던 접종 동의 비율도, 최근 교사들 사이에서는 60%대까지 하락했다.

미디어가 나보다 타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해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미디어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동을 제3자 효과라고 한다. 이는 ‘기본적 귀인의 오류’(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로 분류된다.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에서 비롯되기에 제3자 효과 오류는 교수, 전문가, 기자 등 지식층에 많이 나타난다. 매스미디어 메시지를 내는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남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지식인의 제3자 효과 오류는 대중이 진짜뉴스를 접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불신을

조동찬

조장할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신고됐으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의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지식인들은 본인들만 알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 대중은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백신이 원인이 아니’라는 기사를 읽어야 했다. 그러나 지식인의 우월적 예상과 달리 오히려 백신 불신의 감정이 깊어졌다.

3. 백신과 강대국의 독점

백신은 코로나19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지난 3월말부터 4차 대유행 징조를 보이며 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이 50%를 넘어선 이스라엘과 영국은 환자가 빠르게 줄고 있다. 그러나 백신의 공급은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 인구의 16%에 해당하는 고소득 국가들이 올해 나올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의 70%를 독점한다는 분석까지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최빈국과 중진국 취약층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코백스 퍼실리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금 부족과 선진국의 백신 물량 독점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팬데믹 상황을 벗어나려면 백신 역시 광범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백신이 충분히 공급된 몇 개 국가에서 감염이 감소하는 것으로 팬데믹을 해결하지 못한다.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 세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백신 효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분배 전략이 필요하다.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언론은 백신 분배 불공정 문제를 짚으며 개발도상국들도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 허가와 조달, 배분 등에서 단계적 접근 전략을 강조했다.

그 이후 프랑스가 코로나19 백신 물량 중 5%를 코백스에 기증하고, 영국이 자국민 접종 후 남은 코로나19 물량을 공유하며, 미국은 코백스에 최대 40억달러(약4조 4,280억원)를 기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백신 불균형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 게다가 코로나 백신을 해마다 맞아야 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라 선진국의 백신 확보 노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저개발 국가에도 백신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발제자



노릴라 모흐드 다우드

Malaysia World News
선임 에디터
말레이시아

◎ 이력

- 말레이시아 전국언론인연합(NUJM) 회장 역임
- 아세안기자협회(CAJ) 회장 역임
- 아시아기자협회(AJA) 부회장(현)
- 현 말레이시아월드뉴스(뉴스포털) 선임 에디터
- <우투산말레이시아> <바하사말레이시아> 기자 역임

[코로나19 이후 전망 및 말레이시아 언론의 역할]

코로나19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 정책 방향은 생명의 안전과 생계 간에 균형을 이루는데 있다. 이 정책은 말레이시아 대부분의 주(states)가 CMCO(Conditional Movement Control Order) 및 RMCO(Recovery MCO) 상황에 도달할 경우, 즉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미만일 경우 시행된다.

시민들은 생업을 유지하면서 (inter-state) 이동은 아직 금지되지만 구역(district) 내 이동은 허용된다. RMCO의 주민들은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RMCO로 여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린 트래블 버블’(Green Travel Bubble)로 불린다.

2021년 3월 중반 이후로 신규 확진자가 하루 1,200명선으로 줄면서 재택근무(WFH) 지침은 철회되고, 4월 1일부터는 제조업 부문을 포함한 민간부문이 재가동되고 있다.

노릴라 모흐드 다우드

재택근무는 이제 코로나시대 기준이 되어 새로운 업무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일부 회사와 직종의 경우 재택근무가 경제적이고 생산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택근무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3월 17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200억 링깃 규모의 경기부양책(PEMERKASA)을 발표하면서 110억 링깃을 새로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면서 경제회복을 추구하여 국가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합 및 경제 아젠다를 실행할 수 있도록 5개 주요 부문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경기부양책에 따라 추진되는 20개 사업 중에는 2021년 4월 1일을 시작으로 PSG라는 보조금 명목으로 1000 링깃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사업도 있다. 1백만명의 사업주가 이 보조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Organization)을 통해서인 PenjanaKerjaya 2.0이라는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 20만 명의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였다.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는 임시직 근로자 고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3억 링깃을 들여 6만 명이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600링깃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사회보장국에 등록되어 있는 임시직 제공 플랫폼이나 단기 임시직을 제공하는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명당 200링깃을 받게 된다.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19 영향을 받고 있는 부문의 경우, 정부는 지급보조금프로그램 3.0(Payment Subsidy Programme 3.0)을 확대하여 3개월 동안 7억 링깃을 지출할 예정이다.

관광, 도소매 상인 및 MCO(이동제한, Movement Control Order)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던 사업체(예: 헬스클럽, 스파) 등이 여기 해당한다. 이를 통해 40만명의 근로자와 3만7000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말레이시아중앙은행(Bank Negara Malaysia) 또한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20억 링깃을 지원한다. 자동화 및 디지털화에 7억 링깃이 투입되고, 여타 중소기업에 60억 링깃이 추가 투입된다.

여성 기업가들을 위해 정부는 Kempen e-Dagang PKS와 SME Micro, Shot Malaysia

노릴라 모흐드 다우드

Online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시장으로 고객을 유도하도록 3천만 링깃을 할당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은행은 PEMERKAS-Nita 부양책을 위해 5천만 링깃을 배정해 사업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2월 24일 개시된 코로나19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통해 3월말 현재 50만명 이상의 의료진과 군인력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 2021년 4월 19일부터는 60세 이상 노령층과 장애인, 2가지 이상 만성질환자 등이 2단계 백신 접종을 받게 된다. 2021년 3월 31일 현재 7백만명이 백신 앱(MySejahtera Apps)에 등록하였다.

코로나19 및 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코로나 상황전개, 경제회복 등과 관련된 최신정보를 입수하려면 언론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인쇄매체가 사라지고 온라인으로 대체됨에 따라 시골사람들과 노인들은 최신 소식을 제때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말레이시아 지역신문사들은 인원 삭감을 시작하였다. 지역신문사의 경우 2019년 10월 이전에는 1050명의 언론인을 고용하였지만, 2021년 3월에는 말레이시아언론인노조(NUJM)에 등록된 지역언론인이 438명에 그치고 있다. 인원 삭감 조치와 관계없이 퇴직 혹은 사임하기도 하였다.

2020년 3월 집권한 정부(PN)가 언론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기자들은 언론윤리를 준수하고 법률과 규정을 잘 준수하는 편이다. 일부 언론인은 “현 정부가 그다지 언론 친화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뉴스포털 언론인은 기존의 신문사에 비해 독립적이며 정당의 후원을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장관들과 정부기관은 정부가 소유하거나 정부와 연계되어 있는 주류 언론만 기자회견에 초대하기를 원했다. 이에 일부 선택된 뉴스포털만 기자회견에 참석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및 그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표준운영절차로 인해 뉴스포털 언론인은 장관들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줌이나 이메일 혹은 왓츠앱(Whatsapp)을 이용해 인터뷰해야만 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언론은 경제성장, 고용기회, 교육성과, 사회문제 등의 보도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지역 언론에 저해되는 요소는 코로나19나 응급상황 선포와 관련하여 정부가 가짜뉴스 방지

노릴라 모흐드 다우드

를 명분으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조례를 공포하는 것이 포함된다. 말레이시아언론인노조는 “현 정부가 인종, 종교, 다양한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제시키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을 뛰는 언론인들은 이 문제들을 다룰 ‘언론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언론인노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 규정을 공포하기보다 언론협의회를 통해 가짜뉴스라고 지칭되는 사안들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말레이시아 기자들은 정부가 언론인협의회를 받아들일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발제자



라파엘 로블레도

Nest Taller de Communication
편집부국장
멕시코

◎ 이력

- 기자 겸 정치커뮤니케이션 전문가
- Carlos Septien School of Journalism 신문학 석사
- 멕시코 유력 <El Universal> 기자 역임
- 멕시코정부 웹사이트(migration to gob.mx) 제작 및 운용

**[“언론인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주인공,
코로나로 희생된 전 세계 언론인들에게 바칩니다.”]**

코로나19는 각국 언론인들의 활동에 여러 어려움을 가져왔다. 그 중 첫번째이자 가장 큰 문제는 개개인에 대한 인터뷰가 크게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문제다. 언론의 역할은 독자나 시청자들이 검증된 정보를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언론인 사이에 통용되는 말이 있다. “언론인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 그것이다. 하지만, 주연이 되겠다는 욕심이 아닌 한 기본적인 정의감의 발로로서 언론인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는 당연히 있다.

2020년 5월 화상회의에서 프레데릭 바쉐론 멕시코 유네스코 대표는 전염병 관련 진실보도를 위해 거리로 나서는 이들과 자택이나 뉴스룸에서 데이터를 분석, 조사하며 가능한 수단을 통해 스토리를 얻고자 하는 모든 저널리스트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라파엘 로블레도

그의 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은 우리 건강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 및 저널리즘과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공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은 저널리즘이 사회 및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이것은 실현 가능한 현실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에 가깝다. 이는 또 언론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도전이며 내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싶은 점이다. 언론인은 안전하고, 존엄성이 존중되며 자유로운 조건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멕시코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공유하는 많은 나라에서 유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향해 언론인뿐 아니라, 저널리즘도 더욱 강화하고 풍요롭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턱 없이 낮은 급여

필자의 모국 멕시코에서 언론계는 보수가 낮다. ‘2020 멕시코 제19조’(2020 Article 19)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언론인의 약 절반이 연간 3000~5000달러를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멕시코 1인당 연평균 소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안타깝게도 언론인이 되는 순간 경쟁력 있는 연봉이나 화려한 커리어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멕시코뿐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도 비슷할 거라 본다.

이러한 불안정 속에서 저널리즘이 언론인에게 요구하는 전문성, 지속적인 준비, 헌신적인 정신을 갖추기는 매우 어렵다 배린 배와 미납 요금 독촉장을 손에 쥐고서는 가짜뉴스와 싸울 마음이 생기겠는가?

전문성 부족

코로나19는 언론인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전문적인 의료진 부족이 많은 나라에 악영향을 미친 것처럼 기자의 전문성 부족은 매체뿐 아니라 대중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2020년 9월 코스타리카 보건부 장관을 지낸 마리아 루이사 아빌라 박사는 “언론에 보건

라파엘 로블레도

전문가를 두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언론인과 의사는 과학저널리즘의 동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저널리즘 스쿨은 무엇보다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공공 분야의 주된 의제가 될 건강, 생명공학, 데이터 과학,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비한다.

언론인과 저널리즘 스쿨, 미디어 경영주 사이의 일정한 협의가 없다면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는 언론인에 대한 신뢰 악화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질병 및 위험에서의 자기보호와 표현의 자유

유네스코는 ‘Journalism, Press Freedom and COVID-19 Report’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에 언론인이 직면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계속 직면하게 될 최소 4가지 유형의 위험을 일찌감치 간파했다.

언론인들은 자체보호 대책이나 질병에 관한 충분한 지식도 없이 감염병 취재원과 대화를 나서곤 했다. 멕시코의 경우 언론인 80%가 자체 보호 장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언론인들의 건강을 담보할 사회보장과 보호제도가 부족한 까닭에 그들은 질병뿐만 아니라 취재 과정 속에 숨어 있는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안타깝게도 언론인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의 희생자일 뿐만 아니라 기득권 단체, 조직범죄, 심지어 정부 권력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언론이 고위험 직군이란 사실은 전 세계 어디서나 인정되고 있다.

언론인 없이는 언론도 없다. 그러나 제대로 된 보호대책과 안정적인 급여, 전문교육 없이는 언론인도 있을 수 없다. 언론의 도전은 언론인뿐 아니라 그들을 양성하는 학교와 그들을 고용하는 미디어 회사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발제자



간투야 간부루게드

Normadic Content LLC
대표이사
몽골

◎ 이력

- 노마딕콘텐츠 대표이사
- 몽골언론인협회 이사

2020년 11월 몽골에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사례가 보고되었다. 이후 몽골의 감염자 수는 2021년 4월 현재 7500여명, 사망자는 5명으로 보고되었다. 4700여명이 회복했다. 안타깝게도 4월 현재 코로나 감염은 정점에 달해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 수준인 매일 평균 500명에 달한다. 현재 몽골에서는 30여만명이 코로나 백신 1차접종을 받았다.

몽골 경제는 광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중국이 주 수입국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8월까지 8개월간 광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2020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9.7% 감소했다. 2020년 1~8월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9%, 15.6% 감소했다. 광업 부문 생산량도 25.5% 감소했다. 광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운송 분야도 크게 수축되었다.

중국은 2019년 수출의 89%, 수입의 33%를 차지했다. 중국은 몽골 원자재의 주요 수입국으로 중국측 국경 인근에 정유소와 제련소가 있다. 팬데믹 영향으로 몽골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2.0% 포인트 인하했다. 몽골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 2주간의 엄격한 격리조치를 취했다.

간투야 간부루게드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59.6%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1.3%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작년 1~9월 정부는 실업급여로 377억 투그릭(tugrik, MNT)을 지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한 금액이다. 전체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사업활동을 중단한 기업의 피고용인들은 매월 20만 MNT의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2020년 1~10개 사회복지 및 연금 지급이 19.5% 급증했다. 정부 수당과 보조금도 3.4배 증가했다. 또 사회복지 및 연금 지출은 19.5%, 정부 급여 및 보조금은 3.4배 증가했다.

1. 재정 압박과 미디어 종사자들의 직업 안전성

현재 많은 언론사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미디어기업의 수익 감소는 코로나 봉쇄 영향으로 가속화되었다. 방송은 스트리밍과 디지털 서비스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받고 있으며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디지털 광고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다. 대다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들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없는 상태에 빠졌다.

저널리스트들은 원격근무에 적응해야 하는 심리적·직업적 압박을 받고 있다. 원격근무 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적절한 장비 부족, 업무에 필요한 인터넷 연결망 부실, 취약한 데이터 보호 시스템 등 한둘이 아니다. 또 개인 사생활과 직장 업무간의 불균형, 근무시간 연장, 생산된 콘텐츠의 품질 유지의 어려움 등도 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미디어 분야는 정부의 경제 지원 패키지 혜택에서 빠져 있다.

2. 디지털 전환

다행히도 디지털 기술 등이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을 뒷받침하고 있다. 뉴스룸은 화상 회의 기 자재와 메신저 앱을 활용해 소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구축했다. 저널리스트들은 원격 인터뷰를 포함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3. 언론 자유와 편집 독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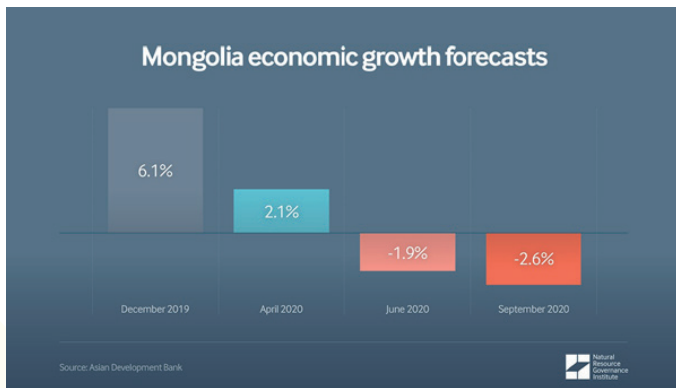
방역 제재로 인해 기자들이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 정치인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낮 12시 보건부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만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환자 입원 병동이나 특정구역 등을 봉쇄한 채 “그곳을 방문하여 취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단 한 마디로 언론의 접근을 막고 있다.

간투야 간부루게드

이는 언론자유에 있어 심각한 도전이며 크나큰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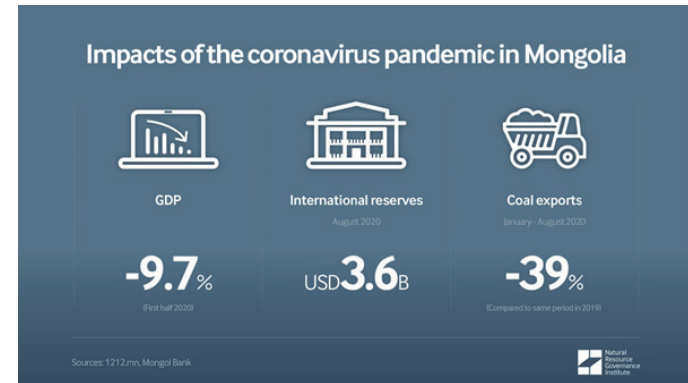
가령 지난 1월 코로나19 환자와 그녀가 출산한 신생아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자 후렐수흐(Khurelsukh) 총리와 내각 전체가 사임했다. 당시 시위는 몽골 경제 상황과 일자리 부족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일어났다. 당시 경찰은 기자들의 병원 내 취재를 금지했다. 하지만 1월 20일 <Eagle TV>의 한 기자가 환자복을 입고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산모와 신생아를 몰래 촬영해 SNS에 올렸다. 이 장면이 바로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것이다.

이후 몽골 정부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 참여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 참고로 몽골 정부는 앞서 2017년 행정범죄법(Administrative offense Act)을 근거로 표현 및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오고 있다.



몽골 경제 성장률 전망
2019년 12월 / 2020년 4월 / 2020년 6월 / 2020년 9월
출처: 아시아개발은행

간투야 간부루게드



코로나 팬데믹이 몽골에 미친 영향
(2020년 상반기)
외환보유액 2020년 8월 USD 36억
석탄 수출 2020년 1-8월 (2019년 동기대비)

발제자



쿠베르 찰리스

Karobar National Economic Daily
편집장
네팔

◎ 이력

- 네팔 최초 일간지 카로바 데일리 편집장
- 주간 자나타 기자 역임
- 히말라야방송(HBC) 프로듀서 역임
- 히말라야타임스, 안나푸르나포스트 등에서 기자 활동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은 네팔 언론인들에게도 큰 위협을 가져왔다. 기자 4명이 취재 중 체포됐으며, 10명은 취재 금지 협박을, 8명은 취재 도중 공격을, 3명은 업무방해를 겪었다.

기자 및 언론사들의 심리적, 금전적 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 대부분 신문사가 종이신문 발간을 중단해야 했다. 이후 상당수는 발간을 재개했지만 일부 일간신문사는 여전히 종이신문을 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들은 발행날짜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으며 발행면 수도 또한 감소했다. 매출은 80% 이상 감소했다. 이 가운데 광고 수입은 네팔 전역에 봉쇄조치가 단행된 2020년 3월 24일 대비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장 기자들의 안전 역시 담보되지 않고 있다.

네팔 언론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전염병 대유행 사태나 네팔에서 종종 발생하는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대중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뉴스 가치가 그만큼 증시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쿠베르 찰리스

이를 위해서는 언론인의 심리적, 금전적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팬데믹이나 자연재해로 위기가 닥칠 경우 기업의 광고지출이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 재정확보를 위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재택근무 문화를 정착시켜 언론인의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볼만하다.

이와 함께 미디어 기업과 언론인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지원과 구호 패키지도 고려대상이 된다. 특히 가짜뉴스에 대한 검증 및 퇴치가 절실하다. 네팔기자연맹(Federation of Nepali Journalists, FJN)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발제자



아부바카 아담 이브라힘

Daily Trust Newspaper
특집기사 에디터
나이지리아

◎ 이력

- 일간 <트러스트> 특집기사 에디터 겸 칼럼니스트
- 뉴욕 소재 국제언론인센터(ICFJ)가 수여하는 아프리카 스토리텔링 부문 우수상 수상 (2018)
- <The Economist>, <Granta>, <Aljazeera>, <BBC>에 종종 칼럼을 기고하고 있음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언론 역시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 경제손실과 이동 제한이라는 새로운 상황은 전 세계 언론인 수천 명의 일자리를 앗아갔다. 그런 한편 언론계는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처해 발 빠르게 뉴스를 전하기 위해 혁신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UN이 “코로나 상황은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위기”라고 표현하듯 업무공간에 새로운 역학관계와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손실도 많겠지만 기회도 많을 것이다. 그동안 축적한 기술 덕분에 뉴스룸이 반드시 같은 공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작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뉴스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공간크기보다 효율성과 적응력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 굳이 종래의 작업환경을 고수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직장을 떠났거나 해고당한 언론인들이 모여 인터넷을 주요 정보 전달수단으로 삼는 언론사를 창립하는 일이 늘고 있다.

아부바카 아담 이브라힘

이들은 대부분 디지털 미디어로, 탐사보도를 주특기로 삼고 있다.

디지털에 능숙한 언론인, 엔지니어, 그래픽 아티스트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공간은 민주적인 소통이 가능한 반면, 감독기관 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향후 수년간 디지털 미디어 규제와 이들 신생 언론의 급속한 등장은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써부터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코로나 이전에도 늘 변화에 직면했으며, 그때마다 환경적응과 생존방법을 찾아야 했으며, 적자생존의 법칙을 유지해 왔다. 물론 코로나19로 상황은 과거보다 더 힘들 수 있겠다. 하지만, 필자는 이번 역시 위기를 극복하고 좀 더 역동적인 형태로 새롭게 부상할 것으로 믿는다.

발제자



라훔 아이자즈

프리랜서
기자/작가/영화제작자
파키스탄

◎ 이력

- The Express Tribune 문화담당 기자 겸 영화비평가(2016~2018)
- 아시아기자협회 사진기자(2014~2016)
- <사막을 건너는 기차>(단편영화) 감독, 미국, 멕시코, 인도, 터키의 6개 영화제에서 공식 선정
- 미국 Film Independent 회원

올해 초였다, 작년말이었다... 스코틀랜드 영화감독인 데이비드 매켄지의 작품 <퍼펙트 센스>를 본 것은 나의 실수였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낯짜 개념이 모호해졌다. 영화에서는 간헐적인 기간을 거쳐 후각에서 미각, 시각 등의 감각 상실을 일으키는 전염병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염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 전염병은 위에서 얘기한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말처럼 영구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리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세상이 다시 예전처럼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1년, 2년 혹은 3년 안에 말이다.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작년에 미국의 영화감독 데이비드 린치는 “여전히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더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필자의 비판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랬으면 좋겠다.

라훔 아이자즈

우리가 목격해 왔던 가짜 정보, 증오범죄, 총기난사, 임금 불평등, 인간의 삶에 대한 경시 풍조, 기타 또 다른 수 없이 많은 자해 문제 및 스스로 자초한 파괴행위 등의 증가 추세가 단지 하나의 전염병 때문에 한순간에 모두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세상은 이전에도 전염병을 겪어 왔으며,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 “더 나은, 더 친절한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가 우리 자신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기꾼처럼 들릴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이것이 아마로 우리가 이 전염병을 딛고 일어서서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력하게 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여기서 언론의 역할이 지금까지보다 더 중요해져야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언론인은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에 어떻게 적응할 것이며, 또한 언론인으로서 세상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은 더 나은, 그리고 더 효율적인 언론인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많은 청중에게 폭넓게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을 수용하는 것이다.

런던 정경대 찰리 베킷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 ‘코로나19 이후 언론의 미래: 기술, 다양성, 협업’에서 특히 데이터 저널리즘과 관련하여 AI와 머신 러닝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또 TikTok을 이용해 창의적인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국 BBC의 Sophia Smith Galer 기자를 예로 들고 있다.

지금 언론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과제는 음모론에 빠져 백신을 거부하는 백신 반대주의자들을 설득시켜 음모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백신 접종은 전세계 모든 사람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다. 언론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화와 설득이다.

자, 글을 쓰자. 기사와 사실과 사건을 전파하자. 끔찍한 일이지만, 이는 누가 가장 큰소리로 외치는가의 문제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크게 외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거리와 광장에서 외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가용한 모든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

라훌 아이자즈

바라건대, 우리는 머지않아 코로나19가 종식하는 날이 오기를 상상하고 또 꼭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필자 개인 생각으로는, 세계적 유행병으로 인해 생긴 좋은 점 중 하나는 대부분의 미팅을 이메일과 전화로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확실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방 접종을 하였든, 안 하였든, 코로나 19 이후에도 우리는 적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사람들과 접촉할 때 불안과 망설임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것은 또한 향후 몇 년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조처와는 별개로 의료문제가 공공 논의의 주제로 자리매김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인의 역할이 전염병의 영향에 대해 냉철하고 냉혹한 진실을 밝히고 이를 단지 보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의 변화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실패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부정책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

파키스탄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여전히 먼 꿈같은 이야기다. 물론 모든 사람이 예방 접종을 받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여전히 백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거나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파키스탄 임란 칸 총리가 여전히 대면, 실내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정도라면 우리도 괜찮을 것 아닌가.

발제자



압델라만 크라이쉬

팔레스타인언론인연합
국제협력 코디네이터
팔레스타인

◎ 이력

- 팔레스타인언론인연합 집행위원
- 라디오 채널 '사와' 리포터
- Birzeit University 강사
- 휴버트험프리 펠로우십 프로그램

코로나 19 발발로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정부나 국제기구 등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했다. 미디어 기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언론은 대중들에게 전염병의 본질을 전하는 한편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코로나 19는 발생 1년도 채 안되어 미디어산업의 지형을 변화시켰다. 여기에는 미디어가 팬데믹 시대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숏한 질문을 던졌다. 특히 팬데믹이 미디어산업에 미칠 영향과 코로나 이후 시대엔 무슨 일이 닥쳐올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 발발 초기 몇 달 동안 팔레스타인 언론인들은 재택하며 취재 및 보도활동에 나서야 했다. 이를 통해 기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테스트 받아야 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하는 일반 대중에게 무거운 뉴스와 가벼운 오락물 등을 전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변화된 상황에서 소비자의 뉴스 수용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편집 정책의 변경이 불가피했다. 코로나19는 이미 위기에 직면해 있던 신문과 잡지 분야 종사자들을 더욱 어렵게 했다. 심지어 코로나바이러스가 신문을 통해 감염시킬 수도 있다는 일부 보도 탓에

■ 압델라만 크라이쉬

판매부수가 70%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여러 신문이 인세를 중단하고 기자를 해고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코로나19 발발로 종이매체가 타격을 받은 것과 달리 디지털과 TV뉴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소비는 증가했다. 또 감염병 관련 정보와 의료 관련 보도도 급증했다. 이와 함께 SNS 이용도 크게 늘었다. 소셜 플랫폼과 유튜브 등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노년층과 대조적으로 15~25세 젊은층은 엔터테인먼트에 눈을 돌렸다. 인터넷 채팅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에 대해 토론 프로그램도 늘었지만,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콘텐츠 일부는 신뢰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것들은 마땅히 가짜로 분류돼야 했다.

언론은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언론은 '감시견' 기능을 수행하여 정부가 국민들에게 책임감 있게 봉사하도록 이끌 책임이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사회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자세와 자격을 갖춘 정직한 언론 및 언론인이 요구된다. 이러한 전문가 그룹은 그에 상응하는 재정적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미디어산업의 쇠락과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해 팬데믹 이전에도 종이신문은 생존 압박에 내몰렸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차별 없이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됐지만, 정보제공자 즉 대부분의 언론인에 대한 보상방법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미디어의 생존 압박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악화되었다. 코로나 이후 언론계에 드러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여기엔 아이러니컬한 측면도 있다.

- 건강 및 경제뉴스 및 정부당국의 정책결정 관련 뉴스 수요의 증가
- 경제 불황과 개인 소득 감소 등으로 언론사 수익 감소
- 가짜뉴스 확산 및 잘못된 정보와 음모론이 디지털로 쉽게 전파됨

■ 압델라만 크라이쉬

문제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는 여전히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그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은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없다. 가령 지난해 미디어 소비는 텔레비전과 디지털뉴스 소스 등을 통해 급증했으나 언론사 수익은 되레 감소해, 여러 방송사 보도국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중은 뉴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지역뉴스 콘텐츠에 접근하기 어렵게 된다. 언론인 감소는 결국 독자나 시청자의 뉴스 수용 범위를 축소시키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부패, 열악한 안전규정, 세금 낭비 등은 언론 감시를 벗어나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남게 된다.

발제자



고레디 마리아 케네스

Post Courier
정치부 선임기자
파푸아뉴기니

◎ 이력

- 파푸아뉴기니 <포스트큐리에르> 22년차 기자
- 유럽, 미국, 아시아, 호주, 태평양 관련 뉴스 데스크와 신문 및 방송국에서 편집위원

코로나19는 태평양의 조그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도 피해가지 않았다. 3월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월 현재 상황도 호전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전염병은 파푸아뉴기니의 전체 산업을 혼란에 빠뜨렸다. 미디어 영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필자 생각으로는 미디어와 관련해 코로나바이러스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가정 내 미디어 소비가 급증했다. 특히 사람들은 코로나 위기에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뉴스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스포츠 생방송이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방송사 수익은 감소하게 됐다.

파푸아뉴기니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21년 3월 28일 현재 5184명, 사망자는 46명이다. 교도소와 광산 같은 폐쇄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의료진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수도인 포트모르즈비를 제외한 여타지역은 검사 비율이 특히 낮아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바이러스가 파푸아뉴기니 내에서 계속 퍼진다면, 우리 나라의 열악한 건강 인프라와 제한된 국가 역량에 비해 바이러스의 대량전파를 억제하기 어려울 듯하다. 바이러스의 확산에

고레디 마리아 케네스

따라 가구의 생계와 농업시스템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취약한 구조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농어촌과 도시의 과밀 주거지 주민들이 특히 취약하다. 최근 몇 주 동안 식료품점의 진열대가 텅 비어있거나 수도 포트모르즈비의 종교시설과 사무실 역시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파푸아뉴기니의 미디어들은 그동안 공공영역과 대중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 더욱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파푸아뉴기니의 언론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디어소비자는 좋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기 원하는 한편 재미있는 콘텐츠에 대한 욕구를 감추지 않는다. 미디어는 이 같은 미디어소비 고객에게 정보와 동시에 재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코로나시대를 극복해내는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발제자



벤자민 페르난데즈 보가도

Radio Libre
디렉터
파라과이

◎ 이력

- 시라큐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 하버드 니먼 펠로우 수료
- 라디오 리브레, 엘 인데펜디엔테 설립자 겸 이사
- 정치 수상집 <El jardin pandémico>(2020) 저술

“정보는 전쟁에서 첫 번째 희생자”이며 우리는 ‘코로나 19와의 전쟁’을 통해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달았다. 처음에 유포된 가짜뉴스는 ‘피해에 대한 통제’를 하려 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사람들은 국가나 기업 혹은 그 누군가가 만들어 낸 음모와 같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다.

저널리즘은 이런 현실을 제자리에 놓아야 할 의무가 있다. 역설적으로, 세계적인 대감염병 시대를 맞아 우리 언론은 진실보도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기회를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더 높은 문화, 경제, 정치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부패가 만연한 정부가 국민들과 얼마나 괴리돼 있고, 보건의로 제도가 문제해결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도 잘 보여준다.

우리는 코로나사태를 맞아 악하고, 추하며, 고약한 사람들을 목도하는 동시에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도 질병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 간호사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발견한다. 이웃과의 연대야말로 세계적인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자 도전임을 알게 된다.

벤자민 페르난데즈 보가도

미국을 포함해 사망자 수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는 폭풍 한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백신수요는 엄청난 반면 이를 공정하게 분배해 접목하는 공적기관의 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패는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보건건강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임을 확인하고 있어 씁쓸하기만 하다.

저널리즘은 우리 시대 민주주의와 현재의 위기를 통제, 극복해야 할 정부가 과연 그런 능력을 지녔는지 진실하게 말해야 한다. 언론은 또 코로나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지금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일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챙겨 보도해야 한다. 남미에 거주하는 우리들은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를 경제와 정치 측면에서 주로 살펴왔을 뿐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데 소홀히 했다. 부패는 죽음의 동의어다. 우리가 철저한 사법개혁을 통해 부패 규모와 빈도를 줄일 수 있다면, 국민들은 지도자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남미에선 부패 없는 정부와 이에 대한 신뢰와 민주질서가 국민 건강과 국가발전의 핵심요소란 사실을 코로나시대는 일깨워주고 있다.

지금 국민들 정부를 잇는 교량을 재건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 시민들의 이유 없는 죽음을 비롯한 그동안의 수많은 실패는 정부와 국민 사이의 불신이 주요 원인이었다.

시민사회는 국민복지 향상에 매우 중요한 정부의 협력자가 된다. 코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전염병이나 사회적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해결하려면, 나약하고 부패한 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 국민들은 자원봉사자로서 정부와 공공전략을 함께 짜는 편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세계적인 전염병 즉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관대함, 연대성 그리고 공감과 같은 가치가 국가와 공동체 단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하지 절절히 일깨워줬다.

한편 백신 확보를 둘러싸고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기주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백신 전쟁은 우리가 협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글로벌 사회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부유한 나라들은 대량의 백신을 사들였고, 그로 인해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훨씬 뒤처졌다. 미국을 비롯한 최고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과학계가 얼마나

벤자민 페르난데즈 보가도

빠르고 효과적으로 질병에 대응해 아이디어와 제품개발에 협력하는지도 우리는 목격했다. 미래에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성공하려면 각국의 연구소들은 정보 및 인적 교류에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저널리즘은 백신을 둘러싼 제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대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미래에 발생할지 모를 유사한 전염병에 맞서려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 밝혀 보 도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책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거짓말이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 은 절대 금물이다. 코로나로 무너져 내린 우리 사회의 진실을 재건하는 것도 바로 우리 언론의 역할임에 분명하다.

발제자



이상현

스푸트니크
한국 주재기자
러시아

◎ 이력

- 2015년 1월 ~ 현재: 스푸트니크 통신사
- 2011년 11월 ~ 2015년 10월: 아시아엔(THE AsiaN)
- 1999년 9월 ~ 2005년 8월: 노동일보

[포스트코로나시대, 언론인도 지정학·기술민족주의에 휩쓸릴 것인가?]

“크게 겁먹을 필요 없이 평상시의 생활 패턴으로 서서히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기독교방송 계열 인터넷 뉴스매체인 <노컷뉴스> 2020년 2월11일치에 실린 기자 칼럼의 한 대목이다. 이 문장 앞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하지만”이라는 문구가 달렸지만,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정상’ 상태에서 그 이전의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뚜렷하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칼럼을 쓴 기자와 비슷한 희망을 품고 산다.

그러나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팀의 임원인 하임 이스라엘(Haim Israel) 은 최근 “코로나19는 지정학과 사회, 시장을 완전히 새로 구성하는 사상 유래 없는 ‘영구적 파괴자’이며, 일시적 위기가 아니다”고 칼럼에서 썼다.

코로나19를 둘러싼 음모론이 많지만, 검증에 성공한 것은 없다. 다만 지난 1년 5개월 남짓 한 기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로병사라는 미시적 세계가 지정학·지경학·기술민족 주의라는 거시세계를 움직여왔음에 새삼 놀란다. 한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세종연구소의

이상현

문정인 이사장은 미중대립의 3측면으로 지정학·지경학·기술민족주의를 꼽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수차례 감염자 대량확산을 보인 미국에서 더 창궐했다. 중국은 베트남 등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국가였기에 대량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반면 주민등록제도가 없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법리가 보편화된 유럽에서는 지금도 대량 확산으로 도시 봉쇄와 이를 반대하는 시위대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바이러스는 이처럼 “서방국가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전통적 프레임에 사뭇 심각해 보이는 상처를 냈다. 감염병을 확산시키지 않는 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다 쉽게 제한할 수 있는 권위주의 정부의 국가가 더 경쟁력이 있음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바이러스 발원국가(중국)와 창궐국가(미국)가 팽팽하게 경쟁하고 있는 점도 바이러스의 미시적 세계와 거시적 세계의 연결성을 연상케 한다.

먼저 ‘지정학’적 대결로, 유라시아 대륙과 해안지역(Rim land), 인도 태평양에서의 패권 경쟁이다. 미중 양국은 전략적 군비경쟁을 벌이며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동중국해, 한반도에서도 대치하고 있다.

두번째는 ‘지경학’적 마찰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만성적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 나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배타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이런 기조에서 무역·투자에서 ‘탈동조화’(decoupling)를 통해 중국을 자본주의 국제분업 질서에서 축출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번째 ‘기술민족주의’(techno-nationalism)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그간 당연시 돼 왔던 ‘보편적 인류애’가 바이러스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허약한 논리로 구성됐는지 잘 보여주는 징표다.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력인 점을 고려, 국가가 기술개발과 과학기술거리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산업과 국가안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국가가 나서서 진흥해야 한다는 국가 중심주의와 적대국 또는 경쟁국의 획득·탈취 시도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기술보호주의, 국제기술표준을 자국 기술로 설정한다는 기술패권주의가 이른바 ‘기술민족주의’의 세 축을 구성한다. 미국과 중

이상현

국은 이 세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중 양국이 현실에서 지정학과 지경학, 기술민족주의 등 3개 분야에서 경합하는 양상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양국의 화폐주도권 경쟁만큼 좋은 사례는 없다.

미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견제책은 무역·하이테크 전쟁에서 금융·통화 전쟁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가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넘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무제한의 화폐증가발행에도 인플레이션 없이 지탱할 수 있는 불공정한 게임을 즐기는 기축통화국이라는 점 때문에, EU(유로)·중국(위엔)·일본(엔)·영국(파운드) 등 특별인출권(SDR) 국가들의 불만은 오랜 기간 증폭돼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맞설 최고의 디지털 달러 전문가들을 재무부 등 경제부처에 배치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오바마 정부 집권 당시인 2014년부터 4년간 여성 최초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통화(currency) 최고 전문가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역시 연준과 MIT가 공동 개발 중인 디지털 달러화를 최근까지 대표했던 인물이다. 연준에서 디지털 달러화 검토를 주도하는 레이얼 브레너드(Rael Brainard) 이사는 민주당과 가깝고 차기 연준의장의 유력 후보다. 브레너드의 남편은 커트 캠벨(Kurt Campbell) ‘인도·태평양 조 장관’(일명 아시아 차르)이다. 미국 국내정치에서 디지털 달러의 표면상 명분은 정부이전지출 대상인 저소득층에게 디지털 달러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위챗페이와 알리페이로 길거리 군것질 결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다. 상의에 자신의 QR코드를 새겨 넣고 다니는 중국 청년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국가주도의 화폐경제를 이끌며 신용카드 등 다양한 화폐를 모두 다 건너뛰고 디지털 화폐경제를 정착시킨 중국은 미국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미중은 이렇게 화폐 패권을 통해 코로나19와 직접 결부된 보건의료 등 과학기술 영역은 물론 외교, 군사안보, 국내 정치 등의 분야에서도 일관되게 상응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상현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각국 언론인들은 지정학, 지경학, 기술민족주의에 입각한 각국 정부의 배타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난 위치에서 가장 객관적인 보도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탈세계화(Deglobalization)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면 인류공영의 관점을 옹골게 견지하는 보도태도는 아무리 자유언론 전통이 강한 나라라도 쉽지 않은 도전이다.

처음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V가 한국의 방송뉴스에 소개됐을 당시, 진행자들은 가끔 입을 가리고 웃었다. 러시아산 백신의 품질이 국제 학술지에서 검증됐다는 뉴스가 나온 뒤에도 “왜 러시아 백신은 수입이 안되나요?”라고 질문하는 한국 언론인들은 거의 없었다.

음모론자들은 부정하지만, 바이러스는 자연과학적 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자연과학적 현상에 대응하는 인류의 태도는 지정학과 지경학, 기술민족주의에서 한치도 자유롭지 못했다.

언론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전대미문의 바이러스에 대해 아무도 가장 과학적 합리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고 위안 삼을 수는 있다. 언론인들은 그러나 바이러스가 만들어 놓은 전혀 새로운 질서의 세상을 앞으로 조망할 때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기존 프레임은 고수하지 말고 특정 국가의 배타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열린 관점으로 인류 공동의 도전과제를 다뤄야 한다. ‘지정학’과 ‘기술민족주의’에서 벗어나 ‘지경학’으로 수렴한다는 생각으로 의제와 논조를 설정하고, 좋은 사례를 적극 발굴·공유·보도해야 한다. 지경학은 평화와 공영, 상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언론인들은 특정 소속 국가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프레임은 단호히 배격하고, 가급적 최대한 국경을 넘어서 공익적 측면의 보도성과를 적극 공유, 인용보도해야 한다. 언론인들은 그래서 각급 공동체가 극단적 자국이기주의의 폐해로 흐르지 않도록 적극 역할해야 한다.

발제자



키르티코른 블로우

Thai PBS World
편집국장
태국

◎ 이력

- 타이 PBS 월드편집국장
- 스프링뉴스(Springnews) 국제 뉴스부문 전 편집장
- 타이아세안뉴스네트워크(TANN) 기자 역임
- 아세안 티비(ASEAN TV) 기자 역임

“왜 몰라요? 뉴스를 만드는 사람인데. 모르는 게 없잖아요.”

5살 아들은 뉴스 관련 일을 하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다. 물론 어머니 내게 그러한 기대를 갖는 게 잘못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비록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올바른 답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답해준다.

나는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찾는 것이 저널리즘의 주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정보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무엇을 공유할 지,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흥미거리’인지 질문하는 것은 옳은 일일까, 그릇된 일일까?

2021년 말까지 페이지 조회수를 두 배로 늘리는 것이 회사 내에서의 내 역할이자 목표다. 하지만 평점, 조회수 또는 ‘좋아요’ 수에 구속받지 않는 공영방송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키르티코른 블로우

정말 이상스러웠던 한 해

2020년은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상한 한 해였다. 2020년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업무방식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다. 물론 저널리즘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 이상하기만 했던 한 해, 여러 언론매체가 영원히 사라지거나 변화하게 되었다. 봉쇄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팬데믹을 다각도에서 조명하는 정보의 과잉공급을 갈망했지만 나중에는 너무 지나쳐 견디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대안뉴스(alternative news)에서 다른 답변과 이유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은 보다 급진적인 뉴스를 제공하는 독선적이고 독립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빠르게 위안을 얻었다. 이는 동시에 전통 미디어 매체들에 콘텐츠 접근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대중매체에서는 정보원들을 인터뷰하고 최종 산물을 포장하며 그 결과물을 게재하는 방식 등 외형적인 부분에도 변화가 있었다. 다양한 기술을 통해 새로운 도구, 형식, 업무 방식 및 새로운 플랫폼에 신속하게 적응한 사람들도 있었다.

디지털 파괴(digital disruption)로 인해 미디어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들 한다. 코로나 19는 적응하지 못한 자들을 사실상 소멸시켰다. 온라인은 방송과의 시청률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으며, 적응하지 못하는 경쟁자들은 결국 길을 잃게 될 수도 있다.

태국 <PPTV>의 원로기자이자 TV 앵커인 파타리 파타라스파사쿨(Pattaree Pattarasopasakul)은 최근 "전통적인 매체들이 앞으로 5~10년 정도 더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단지 그 기간을 가속화했을 뿐이다. 태국의 많은 언론매체들이 여전히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하도록 콘텐츠를 생산한다. 말하자면 '올드 저널리즘'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변화하는 독자나 라이프스타일 및 다양한 경쟁 스트리밍 콘텐츠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변화하지 않는 자들

각국 정부가 입출국을 제한하고, 한때 당연시 여겼던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긴급 법안들이 신속하게 도입했다. 동시에 많은 국가들은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짜뉴스'를 다스린다는 명목으로 언론을 단속하고 통제하는 기회로 삼았다.

키르티코른 블로우

디지털시대는 분명히 기술적으로 큰 변화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의 미디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타이 PBS 월드>의 원로 방송인이자 방송뉴스 편집 부책임자인 휴 브래머(Hugh Brammar)는 "태국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든 근거는 이렇다. "정부가 자신이 정한 재량으로 언론매체를 폐쇄할 수 있는 사법 권한을 부활시키면서, 태국의 수많은 언론인들은 정부나 기타 기관이 발행하는 자료를 단순히 베껴 보도하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

코로나19는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않았다. 영어에서 흔히 하는 표현인 "죽은 당나귀를 걸어 차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실제 영향은 없었다"고 브래머는 주장한다.

다른 나라들의 선거 횡수보다 더 많이 쿠데타를 겪은 태국에서 (태국의 마지막 쿠데타는 4년 전이었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자기 검열이다. 태국의 매체들은 정기적으로 방송을 완전히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건전한 정보를 방송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언론기관에 강요되지는 않지만, 정부에 좀더 비판적인 매체는 일시적일지라도 빠르게 폐쇄될 수 있다.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되면 미디어업계 내 다른 매체에 대해서는 "주의하라"는 경고신호로 통하게 된다.

도전 과제

외부의 평가나 광고주가 언론인들에 영향을 미친다면 차치 미디어 윤리가 손상될 수 있다. 독자나 시청자를 끌어 들이기에 충분할 만큼 인간적인 감성을 더하면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맥락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고 균형 있게 뉴스를 보도할 수 있을까?

루퍼트 머독은 "훌륭한 저널리즘은 항상 독자를 끌어들이는 데 있다. 저널리즘의 재료인 단어, 사진 그리고 그래픽은 훌륭하게 포장되어야 한다. 이 재료는 이성을 충족시키고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머독의 정치관 및 그의 거대기업과는 별개로, 코로나 이전이든, 진행중이든 혹은 코로나 이후든 머독의 이 발언은 언제나 항상 미디어 산업계에 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열

키르티코른 블로우

마나 열심히 기사를 만드는지, 어디에 게재되는지, 또는 우리 아들의 질문처럼 우리가 모든 질문에 대해 해답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매력적이지 않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원하는 뉴스만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흥미를 끌고 생각거리를 던져 주고 토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바쁜 일상에 가치를 더해야 한다는 점이다.

발제자



짐 보멜라

국제기자연맹
전 회장
영국

◎ 이력

- 국제기자연맹 회장(2007~2016) 역임

일자리 감소, 해고와 강제휴직의 삼각 파도 속에서, 게다가 광고 물량 대부분이 사라지면서 신문 산업은 이제 관뚜껑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못을 두드려 박는 듯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를 '미디어의 대멸종'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낸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안간힘을 쓰며 재건전략을 제시하는 이들도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언론 산업 비평가들에게는 호황의 한해나 다름없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단 격리 등 여러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전 세계 어디서나 코로나바이러스 보도를 위해 밤낮없이 일해야 했다.

기자들은 때로는 감춰진 정보를 찾아내는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보도자료의 진위여부를 가려내며 시사각각 촉각을 기울여야 했다.

팬데믹 시작부터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반복하며 기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 상황을 이해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언론의 도움이 필요했다. 팬데믹과 맞서 싸우려면 '단순한 의뢰기술보다 정보의 소통'이 더 중요했다.

■ 짐 보멜라

코로나 발발 1년여가 지나면서 독자들은 팬데믹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 준 기자들의 막대하고 다차원적인 기여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기자들은 의료진의 부족한 장비를 적시에 충분히 조달하는 문제에서부터 최근에는 백신 국가주의(민족주의)와 관련된 비대칭 공급 문제에까지 정보 제공에 힘쓰고 있다. 이들은 또 의료 전문가의 조언과 분석을 취재해 바이러스 관련 수수께끼를 풀거나 통계를 해석하고, 유행단계에 따른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다. 팬데믹이 빈곤, 주택과 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았다.

각급학교의 휴교와 개학 등을 보도할 때에도 이 문제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정보격차와 같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보도했다. 특히 봉쇄조치가 독거 가정이나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욱 고립시킨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팬데믹으로 초래된 경제위기로 일자리를 빼앗긴 이들의 삶이 뒤죽박죽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실태도 캐냈다.

훗날 역사가들은 2020년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평가할 때 당시를 살아낸 저널리스트들이 남긴 수십만 건의 사실들을 참고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가장 흑독하고 가장 비극적인 개개인들의 삶이 보도를 통해 차곡차곡 쌓인 거대한 '기록창고'와 다름 없을 것이다. 역사가들은 이를 두고 "2020년 기자들이 피땀 흘려 수집해 꼼꼼히 기록한 보물창고를 발견했다"고 말할 것이다.

기자들이 폭풍우의 한가운데 들어서게 될 때는 당국의 정책과 정치인들을 면밀히 조사할 때다. 중국의 검열정책, 팬데믹 관련 정부가 만들어낸 가짜뉴스, 기자들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특별법 제정,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 기자는 마치 폭풍우에 맞서고 있는 것과 같다.

코로나 이후 언론 산업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다. 일부 정부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매체와 프리랜서 기자들에 대한 긴급 자금 제공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가 회장은 역임한 국제기자연맹 같은 기자조직이 언론과 언론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저널리즘 지원에는 언론 및 언론인 직접지원과 함께 세금 감면 같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변화는 테크기업들로 하여금 양질의 저널리즘에

■ 짐 보멜라

지원토록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코로나19 발생 후 몇몇 국가에서 의회 입법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팬데믹은 양질의 저널리즘이 적절한 지원을 받고 번창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교훈 중 하나로 남기고 있는 셈이다.



2021 세계기자대회

2021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18(Sun.)-20(Tue.) April 2021

Participants List

참가자 리스트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2021 세계기자대회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1	Germany	Tobias Kaiser	Die Welt	EU Correspondent
2	Colombia	Angel Fernando Galindo Ortega	The pharmaletter and debatesdecineblogspot.com	Freelance journalist
3	Romania	Tinca-Octavia Galescu	ROROR Romanian Broadcasting Company	Musical Editor/ Producer
4	Papua New Guinea	Gorethy Maria Kenneth	Post Courier	Senior Political Journalist
5	Nigeria	Abubakar Adam Ibrahim	Daily Trust Newspaper	Features Editor
6	India	Ambica Gulati	Independent Journalist	Independent Journalist
7	Costa Rica	Mora Dennis	Horizontes Television And Radio Costa Rica, National and International Frequency Por Central America and Caribbean Countries	Director
8	Nepal	Arun Ranjit	Foreign Affairs News	CEO/ Chief Editor
9	Russia	Timur Shafir	Russian Union of Journalists	Executive Secretary / International Director
10	Georgia	Avtandil Otinashvili	News Day Georgia LTD	Chief Editor
11	Palestine	Abdelrahman Khraishi	Palestinian Journalist Syndicate (PJS)	International Relations Coordinator
12	Bangladesh	Mahbub Morshed	The Daily Star	Joint News Editor
13	Indonesia	Mohammad Nasir	Indonesian Journalists Association (PWI)	Director of Public Services
14	Somalia	Awl Khadar Ismail	National Union of Somali Journalists	Information Secretary and Human Rights Officer
15	Cambodia	Pann Rethea	The Post Media.Co.ltd	Sub-editor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16	China	Jing Zhu	All China Journalists Association	Staff Member
17	Dominican Republic	Luis Beiro	Listin Diario	Editor
18	India	Ranjit Kumar	Independent Journalist	Strategic Affairs Analyst
19	Portugal	Leonidio Ferreira	Diario de Noticias	Deputy Editor-in-Chief
20	Philippines	Rosalin Garganera	On Target Media Concept and Public Service & Asian Journalist Association	Columnist/Broadcaster
21	Italy	Antonio Moscatello	Askaneews	Journalist
22	Tanzania	Peter Nyanje	Jamhuri Media Limited	Editor
23	Kuwait	Reaven D'Souza	The Times Kuwait	Managing Editor
24	Kyrgyzstan	Nurzhan Kasmalieva	Kabar News Agency	Chief of translations department - editor
25	Afghanistan	Fathulbari Akhgar	The Kabul Times	Deputy Editor-in-Chief
26	UAE	Rasha Abdelrahman	Ajman University	Head of psychology department
27	Nepal	Kuber Chalise	Karobar National Economic Daily	Editor
28	Egypt	Ashraf Eldaly	The Silk Road Literature Series	Editor-in-Chief
29	Pakistan	Nasir Aijaz	Sindh Courier	Chief Editor
30	Ghana	Malik Sullemana	Ghanaian Times	Senior Journalist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31	Denmark	Flemming Ytzen	Politiken	Columnist
32	Pakistan	Rahul Aijaz	Freelance	Journalist/Writer/Filmmaker
33	Cambodia	Chanritheara Torn	Thmey Thmey Media	Journalist
34	Uruguay	Sebastián Auyanet	NowThis News	Publisher / Strategic Consultant
35	Bangladesh	Md Tawfique Ali	The Daily Star	Former Journalist
36	Laos	Saylakham Khayongek	"Lao Economic Daily Newspaper	Editor in Cheif
37	Nepal	Niraj Ranjekar	aarthiksanjal	Chief Editor
38	Cambodia	Phearun Roeurn	The Office of the Council of Ministers of The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Officer
39	Mexico	Rafael Robledo	Nest Taller de Communication	Deputy Director
40	Malaysia	Norila Mohd. Daud	Malaysia World News	Senior Editor
41	Paraguay	Benjamin Fernandez Bogado	Radio Libre	Director
42	Ireland	Frank McNally	The Irish Times	Columnist
43	United Kingdom	Jim Boumelh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	Former President
44	United States of America	Lynn Walsh	Trusting news/ Freelance Journalist/ Point loma Nazarene University	Assistant Director/ Professor
45	Lebanon	Ghena Halik	Laha Magazine	Reporter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46	Singapore	Ivan Lim	Environment Communication of Singapore	Chairman
47	Kyrgyzstan	kubanychbek Taabaldiev	Kabar News Agency	Director General
48	Vietnam	Thi Lan Cu	Dantri Online Newspaper	Editor
49	Germany	Hassan Humeida	GEOMAR/University of Kiel University of Flensburg	Doctor
50	Georgia	Khatuna Chapichadze	Georgian Technical University	Professor
51	Bangladesh	Ahmed Jamil	Asian Television	Advisor-News&Content Affairs
52	China	Zhihao Zhang	China Daily	Science and Technology Reporter
53	Thailand	Kiratikorn Blauw	Thai PBS World	Editor-in-Chief
54	India	Neelima Mathur	Spotfilms	Executive Producer
55	Honduras	Rosa Pineda	Diario La Tribuna	journalist
56	Mongolia	Gantuya Ganburged	Nomadic Content LLC	CEO
57	Israel	Avi Pitchon	Haaretz	Editor, writer
58	Mongolia	Bolortulga Erdenebileg	Confederation of Mongolian Journalists	Secretary General
59	Bahrain	Habib Toumi	Bahrain News Agency	Media Advisor
60	Malaysia	Mohamad Nasir Yusoff	Formerly with Bernama, Malaysia's national News Agency Now with Malaysia-Indonesia Journalist Friendship Association	"Formerly Managing Editor Now Secretary General"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61	Cambodia	Rinith Taing	Khmer Times	Chief Reporter
62	Cyprus	Petros Soutzis	www.autokinito.com.cy	Editor in Chief
63	Russia	Sang-hyun Lee	Sputnik News Agency	Correspondent to Seoul
64	Cambodia	Sopha Chhay	Cambodia News	Advisor and General News Writer
65	India	Sabina Inderjit	Indian Journalists Union	Secretary General
66	Colombia	Margaret Ojalvo	Al D a Noticias / SIR Radio / OjaNoticias	Director and Journalist
67	Vietnam	Nguyen Do Hoa Mi	Vietnam Journalists Association	Reporter

※ The list is based on the order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 참가자리스트는 등록 순서에 따라 기재되었습니다.



WJC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1

2021 세계기자대회